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13 vol.97



Sulwhasoo

LA MONTRE PREMIÈRE
CHANEL

FLYING VOLANT

High feminine complication, this flying tourbillon decorated with the motif of the camellia, a tribute to Mademoiselle Chanel's favorite flower, beats away discreetly and almost secretly at the heart of the Première watch. Having no upper bridge, the carriage decorated with a camellia appears to be rotating in a weightless state. Limited edition of 20 numbered pieces. 18-carat white gold, set with 228 diamonds (~7.7 carats).





에르메스 코리아 02 544 7722
Hermes.com



A SPORTING LIFE!


HERMÈS
PARIS

LOOK OPTICS CO. + 1999-2016 442735



ck
Calvin Klein



48 16

Style 조선일보

Solwhasoo

설화수에서 선보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스킨케어, 미안 피니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면 성분과 성분의 조화를 돕고 스킨케어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신개념 피니셔로, 하루 종일 피부의 생윤기를 살려준다. 80ml 9만원대. 문의 080-023-5454



28



14

- 16 **오로라의 노래, 그리고 대관령의 추억** 자연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찬란한 위상과 하이라이트에 대하여.
- 18 **TIMELY BEAUTY** 더 효과적인 타이밍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새로운 방법.
- 20 **TOP OF THE BAG** 고급스러운 색감, 생동감 있는 텍스처, 이그조티브한 특유의 매력과 오라의 하이엔드 악어 가방을 소개한다.
- 22 **REFINED SPLENDOR**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작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영혼의 타치가 담긴 하이 주얼리 워치가 그 품을 이루어줄 것이다.
- 24 **CLASSY BOX** 쉽게 잘리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 견고한 기능성까지 두루 갖춘 케이스를 소개해보자.
- 26 **GET IT DEVICE** 요즘 핫하다는 뷰티 디바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
- 27 **2013 A SPORTING LIFE** 매해 정하는 에르메스의 올해의 테마는 'A Sporting Life'이다.
- 28 **BE A GENTLEMAN**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빅 패션 하우스들의 2013 F/W 남성 컬렉션.
- 36 **SUPERIOR QUATRE** 가장 고귀한 소재인 골드의 컬러와 형태를 내가지 모티브로 정교하게 세팅한 부쉐론의 쿼트르 컬렉션.
- 37 **THE MOST FABULOUS JEWEL** 아름답고 값진 원석만 다루어온 영국의 명랑 높은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
- 38 **SECRET TREASURES** 1백18년간 아름다운 크리스탈 주얼리를 선보여온 스와로브스키의 2013 F/W 컬렉션.
- 40 **ULTRA FIRING UP** 클리안스에서 올 9월, 노화로 느슨해진 피부 속 탄력 고리를 탄탄하게 다시 연결해줄 '엑스트라-피팅 데이 & 나이트 크림'을 선보인다.
- 41 **DUAL EFFECT** 낮과 밤의 케어를 달리해 건강한 피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매치업, 소선보크림과 청윤수딩팩을 만나보자.
- 42 **ANTI-AGING THERAPY**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누가 사용하든 만족할 만한 확실한 효과를 자랑하는 비오템의 블루 테라피,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 44 **POWER LIFT** 출시 후 1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은 '시세이도 필자 주름 크림'을 소개한다.
- 45 **THE MIRACLE OF PITERA** 변함없는 신뢰를 입증하는 피테라 에센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SK-II 피테라 하우스에서 마릴 스토리가 펼쳐졌다.
- 46 **POWER OF VALUE** 브랜드의 흥망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브랜드의 명성을 지켜온 오리지널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 47 **SUPER SMART** 다섯 가지 노화를 한 번에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키엘의 슈퍼 스마트 크림을 소개한다.
- 48 **ALMOST PARADISE** 영국 콘데 나스트 사의 (트래블러)가 선정한 2013년 월드 베스트 뉴 호텔 부문 핫 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한 몰리아 발리를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97 September 2013



FENDI

FENDI.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어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ENCHANTING MONOTONY

심플하지만 강렬한, 현대적인 언어를 지닌 블랙 & 화이트 주얼리의 한결같은 아름다움.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리니티 장鍊의 블랙&화이트 이아링 1천7백원(원래 1천900원) **카르띠에**, 화이트 골드와 블랙 세라믹,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쿼츠로 블랙 에디션 링 1천원(원래 1천200원) **부켄**, 블랙 오스에 불가리 로고를 매치한 불가리 불가리 링 4백원(원래 450원) 오스 이아링 3백원(원래 350원) 모두 **불가리**, 삼지 모티브를 블랙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S. 로렌조 네코스 4백원(원래 450원), 브랜드를 상징하는 'D' 로고와 블랙 세라믹을 매치한 다이아몬 링 3백원(원래 350원) 모두 **다이아나**, 블랙 사파이어로 육조를 표현한 큐피드스 블랙 사파이어 펜던트 3천원(원래 3천500원) **부켄**, 실버 소재를 2가지 다르게 디자인해 3개의 링을 함께 착용하게 한 레이아링 링 2백70원(원래 300원) **미아라 이스타로 by 타카기**, 도시적인 블랙 골드 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트로폴리탄 드림 브레이슬릿 4백원(원래 450원) **다이아나**, 에디터 **베르진**

Fashion NEW SEASON, NEW BRAND

올해 초부터 시작된 신규 패션 브랜드의 국내 론칭 소식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반기를 책임질 뉴 페이스가 한 국 상륙 작전을 시작했다. 먼저 그동안 10 코르소 꼬모나 코보누아 등을 중심으로 얼굴을 내밀던 '델보(Delvaux)'가 현대백화점 본점에 정식 론칭한다. 1백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럭셔리 가죽 하우스라는 위업을 증명하듯 군더더기 없는 묵직한 형태와 견고한 가죽으로 클래식 백을 선호하는 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토즈 그룹에서 탄생한 페이(Fay)는 클래식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로, 분다삼을 통해 처음 아시아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고 1970년대 미국 소년들의 포 보너 코트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재킷과 니트 웨어가 대표적이며, 체크, 아가일, 스트라이프 등 가장 클래식한 패턴이 중심이 된다. 편집 매장 자스트리트 494(G. street 494)를 통해 선보였던 이탈리아 프라미엄 아우터 브랜드 헤르노(Herno)는 갤러리아 명품관에 단독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알렸다.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면서도 얇은 캐시미어 카디건을 걸친 듯 가벼운 착용감, 슬림한 실루엣의 패딩으로 국내 프리미엄 다운 마켓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또 지난 7월부터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 센트럴 포스트에서는 세계적인 모델 라야 케베다가 론칭한 브랜드 '렘(Lelem)'을 선보였다. 혁신적인 소재의 트랜스코트(가 대 표적인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알레그리(Allegri))도 현대백화점 본점에 인착하며 감각적인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 하는 남성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디터 **이예진**



Beauty SOFT AND SMOOTH

리치한 크림으로도 건조함과 각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일 코즈메틱을 사용해보자. 세안 후 물기가 촉촉이 남아 있을 때 사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된다. 크림에 섞어 자기 전 도톰하게 바르면 수면 팩 못지않고, 피문대아선에 한 방울 섞으면 윤광 피부를 완성 할 수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멜비타 아르간 뷰티 오일**은 1병에 4백16개의 유기농 아르간 너트를 담은 100% 유기농 프리미엄 오일로, 신화 방지 효과가 뛰어 나다(50ml 4만8천원). **카렐 미드니잇 리카비리 칸센트레이트**는 달맞이꽃 오일, 식물성 스킵렌, 라벤더 에센셜 오일 등 식물성 오일만 블렌딩한 집중 영양 니트 오일이다 (30ml 6만7천원). **달링 자스민 아로마틱 케어**에는 피부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순수 아로마인 재스민, 일랑일랑, 로즈우드와 팜피로사 에센셜 오일, 그리고 탄력에 도움을 주는 라즈베리 오일을 담았다(15ml 1만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사람이라면 **클라 리스 블루 오일 오일**을 추천한다. 탈수 피부의 균형을 되찾아준다(30ml 6만2천원). 비타민 부스타라는 애칭이 있는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레디언트 바이올리네 에센스 오일**은 텍스처가 가벼운 오일로, 끈적임 없이 싹뚝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30ml 8만원). **디올 캠크 토탈 오일 뉴트리션 니처링 오일-세럼**에는 자생, 영양 공급, 피 부 진정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메드폴 시드 오일, 카멜레나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을 농축 담았다. 텍스처가 리치하지만 오일리치하지 않아 피부에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30ml 19만5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esign 전설의 스타를 내세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멋쟁이 음료를

해마다, 또는 철마다 시신을 시로잡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놓고 특별한 옷맵시를 뽐내는 음료들의 무한 변신이 줄거다. 솔직히 때 되면 나오는 타라 지겨워질 법도 하지만 새 옷에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일까. 최근 대표적인 광천수와 탄산음료 브랜드들이 선보인, 공통적으로 전설적인 스타를 내세운 보틀 디자인이 청량감을 준다. 프랑스 천연 탄산수 브랜드 페리에(Perrier)는 탄생 1백50주년 기념 한정판을 위해 팜파트의 거 장 앤디 워홀을 선택했다. 워홀은 1983년 페리에의 상징과도 같은 불루츠 초록색 병에 서 영감을 받은 일련의 작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선보인 이번 한정판은 그가 완성한 페리에 이미지와 팜파트 분위기의 역동적인 색감으로 라벨을 장식 한 점이 특징이다. 오는 연말까지 코스트코, 이마트 등에서 판매하며, 캔 버전도 있다. 이탈리아의 탄산수 신발레그리노(S. Pellegrino)와 미네랄워터 브랜드인 아쿠아 파나(Acqua Panna)도 20세기 최상의 '목소리' 중 하나로 꼽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기린 파바로티 에디션을 선보였다. 파바로티의 사진이 프린트된 이 한정판에는 'Celebrates Luciano Pavarotti'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밖에 코카콜라에서는 지난해 말 내놓은 일루미늄 캔투어 에디션에 이어 일루미늄 시리즈 2탄으로 년티지에 디션을 들고 나왔다. 복고풍을 앞세운 이번 에디션의 얼굴은 유명인 못지않게 세인의 사랑을 받았던 코카콜라의 '캘빈더 걸'이다. 불그스름한 뺨에 잔잔 갈색 머리의 그녀가 뽐내는 관능미가 단연 돋보인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로버트 카피 탄생 100주년 사진전)

매력일 것이다. 유대계 항구도시인 카피는 '피로 열륙했던 20세기 전반부에 전쟁터에서 활약했지만 전쟁을 끝내고 혐오하는 평화주의자였고, 당 대 최고의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데이비드 시모어와 함께 독일 포도 자갈리스트들을 위한 보도사진 에이전시인 매그넘을 창립한 선구자이 기도 했다. 또 연인인자 파트너였던 게르다 티로가 스페인 내전에서 맹목에 처해 숨겨져 남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앙그리데 버그먼을 비롯해 그를 흠모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결코 정하지 못했던 '방랑형'이기도 했다.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는 티로와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해방망이, 피카소, 마티스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교류했던 카피의 궤적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카피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상은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볼거리다. 관람 시간은 1시 30분~오후 9시, 입장료는 1만2천원(상인 기준)이다. 참조 www.robertcapa.co.kr 에디터 **고성연**



P R A D A

Ben Whishaw
London, March 2013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티클라이 컴백션 가격 미정 그라프.

블랙 & 그린의 튠트 매치가 맛스로운 앙가죽 클러처. 15.5X23cm, 79만원 마르니.

특유의 샤한샤한 핑클 컬러 가격 미정 샤넬.

for her Selection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 이번 시즌은 복고 무드가 지배적이다. 체크, 도트 패턴과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개성 넘치는 여성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볼드하고 화려한 진주 네크리스 2백만원대 다음.

에스닉 골드 패턴이 눈에 띄는 핑클 색안경에 1천원대 그라프.

가죽 고임 장식이 돋보이는 복고풍 선글라스 가격 미정 보테가 베타.

골드 문장 버클 장식의 소가죽 벨트 가격 미정 알프 로렌 캄백션.

4SERIES 우완형 예뻐서 귀여워진

레고 브릭을 영감해 만든 디자인이 유미로운 투투드 클러처. 12X15cm, 7천만원 샤넬.

레트로 무드의 체크 패턴이 포인트인 토트백. 36X25cm, 1백30만원대 프라다.

복고 패션의 향연! 1백만원대 핑클 캐주얼 바지 가격 미정 샤넬.

가하한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아이패드 케이스 29만원 매쉬 이코라 by 톨 그레이하운드.

- 다음 02-513-3232
- 마르니 02-3445-3664
- 그라프 02-2256-6810
- 샤넬 02-543-8700
- 핀도라 02-3479-6092
- 토즈 02-3479-6030
- 보테가 베타 02-3438-7682
- 프라다 02-3218-5331
- 라플레사움 02-6905-3775
- 알프 로렌 캄백션 02-6004-0133
- 톨 그레이하운드 02-3442-3696
- 미크 by 마크 제이플스 02-3442-2950



TASAKI

balance



동그란 프레임이
유난히 선글라스
30만 원대 신데이 섹웨어
by 유티킵 W.

미-덜한 디자인의 가죽
뮤지엄 백, 41x29.5cm,
2백90만 원대 생 로랑.

엘로 자갈라-스틀라이브 지갑
리, 33만 원, 44만 원 플 스키스.

영국 영과 케스 1세의 화려한 문양에서
모티브를 얻은 펜, 3백90만 원 몽발.

카키 컬러의 하운즈
투스 패턴 셔츠
59만 원 플 스키스.

for him Selection

레트로, 클래식이란 키워드가 매 시즌 트렌드로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초월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일에 유티와 감각을 더해줄 레트로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cun*



스카프 소재의 브라운 테슬
로퍼, 199만 원대 토티스.



메탈 시계 벨을 앙상케 하는
키츠, 링크, 89만 원 시켄지.



우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드빌
프레스타지 코-엑시얼
레드 골드 워치
1천1백만 원대 오메가.



클래식한 RESERVE 시리즈 23만 원대 테슬로퍼 by 비이피.



도트 패턴의 넥타이
가려 미장, 1백만 원대 비이피.



울 소재의
패미줄리
패턴 스카프
28만 원대
Z 제너.



오래된 가죽이
매를 나타내는, 1백만 원대
에르메스.



신뜻한 엘로 컬러의 지갑 가격 미장 10만 원대.



생 로랑 02-3438-7627
몽발랑 02-3485-6627
비이피 02-543-1270
유티킵 W 02-6911-0845
플 스키스 02-3447-0278
올체안지비나 02-3444-0077
에르메스 02-544-7722
코아드 02-3448-4778
주느세라 02-515-3151
Z 제너 02-546-6287
프라다 02-3218-5331
토조 02-3438-6008
자참시 02-6905-3664
오메가 02-511-5797

진정한 체르누키가 멋스러운 코트 가격 미장 10만 원대.

HUGO BOSS Phone: + 82 2 4115 4088 www.hugoboss.com



HUGO

HUGO BOSS

청담 롯데그림 갤러리아 명품관 EAST 4F 현대백화점 코엑스점 7F 롯데백화점 본점 5F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5F

10th Great Mountains Music Festival 오로라의 노래, 그리고 대관령의 추억

미국에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이국적 자연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찬란한 위상과 하이라이트에 대하여.



2

오로라의 노래

북유럽 음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정명화, 정경화 예술감독이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를 북유럽 음악으로 정한 것은 이미 지난해의 일이었다. 페스티벌의 레퍼토리를 넓히고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를 선사하기 위해 클래식 마니아가 아닌 아들은 조금은 낯설지도 모르는 북유럽 음악을 메인 테마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페스티벌 '오로라의 노래(Northern Lights)'는 그간의 명성에 버금가는 열렬한 찬사를 지어냈다. "북유럽은 최근 세계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 음식, 엔지니어링, 문학, 미술 등도 훌륭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북유럽 5개국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요." 클래식 마니아이기도 한 대관령국제음악제의 구상열 행정감독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북유럽이 그리고, 시벨리우스, 닐슨뿐 아니라 많은 음악가를 배출한 비결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했다. 내한한 핀란드 출신의 유명 지휘자 사샤 마킬라는 북유럽 음악은 크게 '샘물, 대수, 그리고 어린 시절의 풍경'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가 시벨리우스는 자신의 음악을 고향의 샘물에 비유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음악가인 그리그는 즐겨 먹는 대구 요리에서, 닐슨은 어린 시절의 풍경에서 자신의 음악이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지요." 북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인 그리그가 자신의 음악이 생선에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이 재미있다. 하지만 사샤 마킬라는 북유럽 음악가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공통점이 없다는 게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 북유럽의 자연과 여유로운 생활 방식은 중남부 유럽의 음악적 유행이나 규칙에서 자유로운 흐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새롭고 독창적인 음악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페스티벌의 첫 번째 순서인 '저명 연주자 시리즈' 연주회에서는 노르웨이 출신 음악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 Op. 40', 핀란드 작곡가 아이노유히아 라우타바라의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Op. 1', 스웨덴 작곡가 다그 비렌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 11'을 연주해 '오로라의 노래'의 시작을 알렸다. '오로라의 노래'를 직접 연주하기 위해 핀란드에서 지휘자 사샤 마킬라 이외에 관악 5중주단 핀타지아 퀸렛, 생 미셸 스트링스 등이 내한한 것도 주목할 만했다.

첼로와 대금을 위한 관현악곡의 세계 초연

그렇다고 이번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 북유럽 음악만 연주한 것은 아니다. 바흐, 베토벤, 비발디 등 대가들의 곡 연주도 연이어 펼쳐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13년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연주회도 눈에 띄었는데, 베르디 탄생 2백 주년을 기념하는 국립합창단의 공연 '오페라 합창 모음'은 오페라 애호가들에게 열렬한 비수를 받았다. 오페라 <나부코>,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돈 카를로> 등 베르디의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벤저민 브리튼 탄생 1백 주년을 축하하는 '첼로 소나타 C장조 Op.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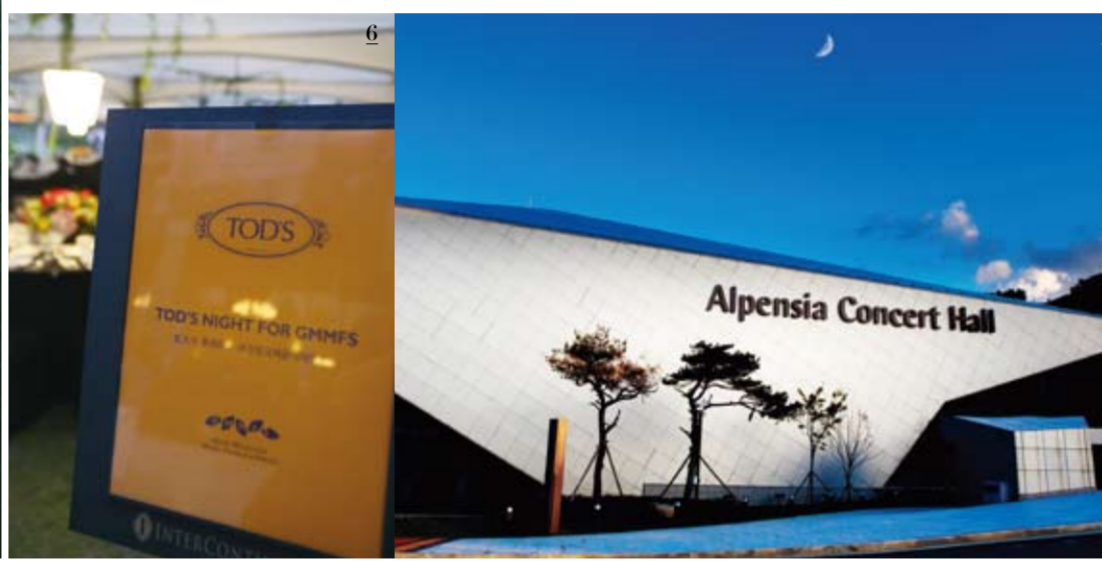
감상했다. 후시 당시의 옆자리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한 이탈리아 대사 세르조 메르쿠리, 일선방직 김영호 회장, 배우 윤여정, 영화감독 이재용이 앉아 있었다도 당황하지 마시라. 한편 VIP와 연주회를 마친 음악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디너파티도 거의 매일 진행되었는데, 이는 삼성, 브레게, 토즈, 대원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후원 기업들은 다채로운 방법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지원하며 기업의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할 뿐 아니라, 음악제를 격조 있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특히 토즈의 파타는 음악가와 VIP들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 중 하나로,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테이블 세팅에서부터 요리, 좌석 배치까지 해마다 섬세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민하기로 유명한 스타 음악가들이 2백여 명이 모이다 보니 까다로운 요구에 따른 에피소드는 없을까? 정명화, 정경화 예술감독과 구상열 행정감독의 풍부한 경험과 후원사의 도움으로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티스트들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협찬한 KT와 산동 와인, 네스프레소 커피, 크롬버커 맥주의 후원으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 또 유재세 현악실에서 언제든 스트라디 바리우스 현악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다만 밤에 객실에서 연습하고 싶어 하는 연주자 모두에게 복도 구석에 위치한 룸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작은 불편일 뿐이다.

페스티벌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

음악제가 끝날 무렵에는 무대에 정명화, 정경화 예술감독이 올라와 개최 1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탄생시킨 전 강원도지사 김진선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의 문화 관광 부흥을 위해서 음악제를 개최하기로 결심했고, 당시 강효 초대 예술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지금의 세계적 음악 축제가 탄생할 수 있었다. 강효 초대 예술감독은 아티스트 특유의 특성으로 음악가의 실력을 우선시하는 음악제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8회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을 맡은 정명화, 정경화 자매는 세계적 인맥과 새로운 도전으로 단기간에 페스티벌을 급성장시켰다. "모든 연주자 의미 깊고 소중한데 보니 2주일 동안 개최되는 연주회를 모두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티켓을 구하기 어렵고, 음악제 내내 시간을 내기도 힘든 이들을 위한 묘안이 있지요. 페스티벌의 주요 음악회는 KBS에서 조만간 실황 중계할 예정이고, KBS 클래식 FM 라디오에서 라이브 연주도 감상할 수 있어요."

정명화 예술감독은 클래식 FM 라디오에서는 생방송 부스를 만들어놓고 연주회를 막 끝낸 아티스트와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콘서트홀에서 직접 듣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는 경우, 미처 티켓을 구입하지 못한 마니아들을 위해서 음악 텐트에서 무료로 실시간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컨벤션 센터에서 무료로 공연되는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도 놓칠 수 없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현악 4중주단 노부스 파르텔처럼 이곳에서 공연했던 젊은 연주자가 몇 년 후 스타가 되어 다시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찾는 일도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점 찍어둔 연주자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연주회와 파티 외에도 음악제를 만끽하는 방법은 또 있다. 음악제가 열리는 알렌시아 리조트는 대관령 자연 속에 위치한 굿갯길 트레킹 코스를 갖추고 있다. 세 가지 코스로 꾸민 알렌시아 트레킹 코스는 각각 다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고, 사계절이 변하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뒤편에 펼쳐진 작은 동산은 30분이면 정상까지 다닐 수 있다. 호텔 앞의 숲길 산책로부터 시작하는 타운 산책길은 이른 아침 또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저녁에 둘러보면 좋은 코스. 특히 아침이면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볼 수 있다. 스키 점핑 타워를 바라보며 스포츠 파크를 향해 걸어가는 코스는 '올림픽 기념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성한 스포츠 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내년에 개최될 제11회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주제는 무엇일까? 예술감독들은 이미 테마를 정해둔 듯 보였지만 당분간 말해주시 않을 테다. 다음 여름의 만남을 기대하며 오로라의 추억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두려 한다.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홀더(라의 자)



6

7



3

1 미술가 도성욱의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에 헌정하는 그림, 그의 작품들이 콘서트홀 1층 로비에 전시되어 관객들에게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을 선사했다. Condition-Light, 112X162cm, Oil on Canvas, 2013. 2, 7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연주회가 열린 콘서트홀과 음악 텐트가 펼쳐진 알렌시아 리조트의 전경. 햇빛 창명한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특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음악감독을 맡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음악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이들을 객석,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4 올해 초 뉴욕 카네기홀 대관 콘서트를 시작으로 주로 유럽에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꽃이님 현악 4중주단, 노부스 파르텔, 5 수안의 '피아노 4중주 E-Flat 장조, Op. 47'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보리스 브로프킨, 피아니스트 백혜선, 첼리스트 지안 왕, 비올리니스트 로베르토 디아즈, 6 토즈가 VIP와 음악가들을 위해 마련 마련하는 다-피타는 정성을 담은 근사한 테이블 세팅에서부터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8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귀녀와 VIP들이 평생을 방문하는데, 마지막 주말에는 50개국 1백여 명의 외교관 사절이 연주회를 감상했다.



4

Timely beauty

데이&나이트 전용 제품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더 완벽한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 그들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에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더 효과적인 타이밍에 사용하는 화장품과 새로운 방법을 내놓고 있다. 더 좋은 피부를 위해서 새로운 뷰티 루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왜 타이밍을 이야기하는가

지난 6월 사설 코스메틱은 낮과 밤, 주일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출시했다.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이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 날이온 사설 담당자는 이것은 전혀 본 적 없는 콘셉트의 화장품이며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 단언했다. 물론 주일에 쓰는 화장품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기자들은 생소한 콘셉트에 당황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뷰티 루틴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콘셉트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의문은 남는다. 낮에 사용하는 제품과 달리 밤 전용 화장품을 발라야 하는 이유는 대략 알겠지만 주일에 또 다른 화장품을 발라야 한다고?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렇게 화장품을 버리는 타이밍이 세분화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타이밍 뷰티의 시초, 나이트 전용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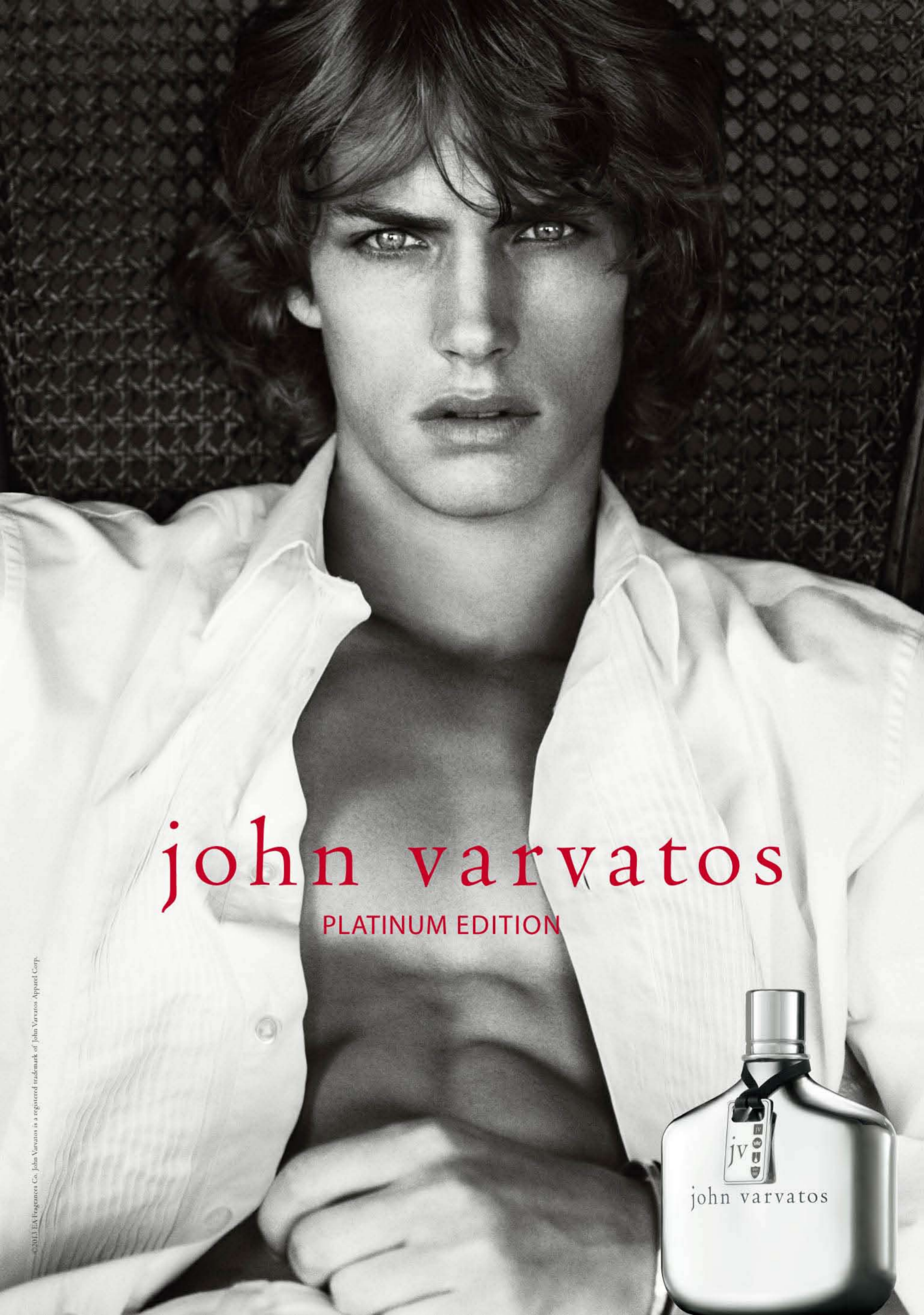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 지금은 낮에 사용하는 제품과는 다른 밤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지금이야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피부 속 진피까지 침투시키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처음 스킨케어에 관한 화장품이라는 것이 나온 1백여 년 전에는 단지 보습으로 피부 표면만 케어하는 기능이 전부였기에 굳이 밤과 낮에 다른 제품을 바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밤 전용 화장품을 만들었을까? 나이트 케어의 시초는 그 유명한 에스티 로더의 갈색병, 나이트 리페어 싱크로나이즈드 리커버리 콤플렉스다. 최근 6세대까지 선보이며 리뉴얼된 이 나이트 리페어는 최초의 밤 전용 제품으로, 파우더도 낮 동안 화장품이 햇빛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인공의 사람 병자림 고안 되었다. 물론 지금은 다양한 과학적 발전에 의해 나이트 리페어의 유효 성분이 낮에도 파괴되지 않도록 개선되었지만 밤 시간 동안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수많은 크림들이 데이와 나이트로 구분되어 있고 유효 성분을 훨씬 많이 담고 있는 나이트 제품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이다.

피부는 삼장이나 폐, 위와 같이 몸을 이루고 있는 장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민저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자는 동안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바꿔준다. 이 휴식 시기에 피부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를 부지런히 만들어낸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어 피부의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림프의 혈액순환을 통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 성분을 공급해 새로운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턴 오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즉각적으로 피부에 스트레스가 쌓여 피부 속 수분이 고갈되고, 낮 동안 손상된 피부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 다음 날 평소와 같은 양의 자외선을 쬐더라도 색소침착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밤 동안은 평소 낮에 사용하는 제품이라 밤의 피부 사이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트 전용 제품의 대표인 크림이나 세럼뿐만 아니라 밤의 피부 사이클에 최적화된, 보다 발전된 재생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실험실에서 선보인 에스티로더의 파치는 이러한 밤 시간을 공략해 선보인 독특한 한방 침 원리의 화장품으로 매우 신기한 콘셉트이다. 굳이 있는 주름을 에스티로더로 채우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붙이면 패치에 붙어 있는 미세 침이 크림의 효능을 피부 속까지 전달한다. 필자처럼 주무로 굳은 피부를 지극히 주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원리다. 물론 이 제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일마다 한 번, 재생 능력이 극대화되는 밤 시간에 사용해야 한다. 카렐의 오나이트 바이오저널 필 역시 오로지 밤 시간을 위한 저자극 수면 각질 제거 트리트먼트다. 자극적인 각질 제거를 원하지 않고, 고른 피부 톤을 원한다면 세포 재생이 활발해져 턴 오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밤 시간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따로 각질 제거를 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1~3번 비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밖에도 팍이나 크림, 나이트 에센스처럼 반드시 밤에 사용해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들은 수도 없이 많다. 레티놀과 비타민 C처럼 자외선에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지거나, 최소 5시간 이상 사용해야 완벽한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사용해 인테이징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밤이라는 타이밍을 꼭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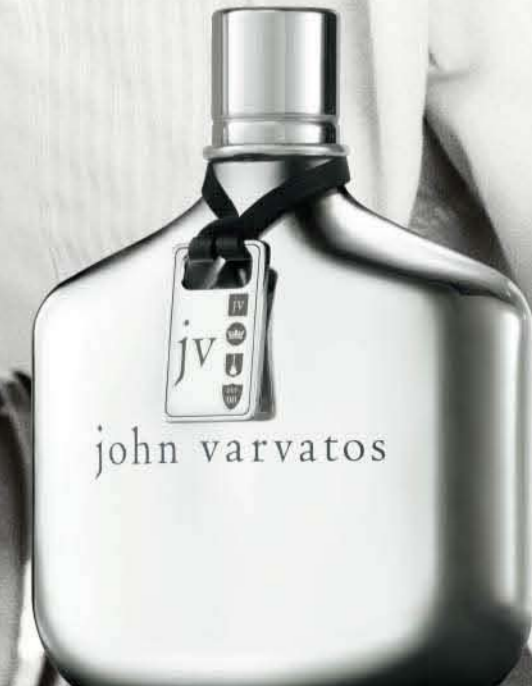
데이&나이트를 넘어서

최근 화장품업계의 새로운 뷰티 타이밍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다. 나이트 케어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만큼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다. 스트레스를 느낀면 부스끼질 호르몬이 분비하는데, 이를 들어 동물들은 생사를 거는 절박한 순간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 뒤 도망가기 위한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부스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또 도망간다. 사람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위와 같은 과정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 부스끼질 호르몬이 자신의 일을 마친 뒤엔 피부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당을 만든다 보니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를 야기하고, 불필요한 당은 탄백질과 반응해 활성산소라는 해악을 남겨 피부가 녹슬게 된다. 최근 수많은 브랜드에서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피부 사이클에 맞는, 스트레스와 휴식의 타이밍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에스티 로더의 6세대 갈색병 역시 이러한 스트레스에 손상된 피부의 회복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피부 사이클을 정상화하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했다. 낮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재생 능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피부를 정상 사이클로 동기화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피부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화장품이 돕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사설의 신제품은 아침과 밤, 주일에 사용하는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피부 시간을 리셋해줘야 한다는 타이틀로 피부 시간을 케어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아침에 사용하는 '리 주르'는 피부가 외부 자극을 받기 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강화하는 기능을, 밤에 사용하는 '리 누르'는 재생이 활발한 밤 시간에 탄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콜론 성분 분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콘셉트가 가장 독특한 주말용 제품 '리 워켄드'는 일주일에 이틀, 주말에만 사용하는데 피부 상태를 리셋해준다는 새로운 제품이다. 평일 동안 무너진 피부 사이클을 되돌려주는 턴 오버 기능을 위해 일반적인 로션 타입의 제품에 자극 없는 각질 제거 기능을 담았다. 사실 제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라이프스타일 사이클을 고려해, 타이밍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셉트의 구성을 제안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세심하게 화장품을 선택할 수 없는, 바쁜 일상 때문에 생활 패턴까지 고려하며 화장품을 구매할 수 없지만 좋은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피부에 좋은 '스킨포와 타임 테이빙'을 제안한 것이다. 누군가는 화장품 브랜드의 이러한 독특한 구성과 뷰티 타이밍에 관한 끊임없는 개발을 마케팅 기법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세심한 케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실용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화장품 브랜드가 앞서 있게, 밤과 낮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받은 순간,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낮 시간 옆에 의한 노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케어하는 디테일한 타이밍 케어 제품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회사의 과학적 연구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의료 연구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여자들의 피부를 드라마틱하게 바꾸어줄, 나이트 케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스킨케어 타이밍을 찾게 된다면 수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john varvatos
PLATINUM EDITION



©2013 L'Oréal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크로코 레이디 디올 백** 디올의 시그니처 백인 레이디 디올의 악어 가죽 버전으로 탄생한 크로코 레이디 디올 백, 영국 디자이너나 황태자비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탄생한 레이디 디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올의 첫 번째 가방이다.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과 반짝이는 브렌드 참(charm) 장식이 악어가죽과 어우러져 최상급의 럭셔리를 표현했다. 23X20cm 가격 미정, 문의 02-513-3223

펜디 크로코다일 피카부 백 80년이 넘는 전통을 지켜온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반영해 진정한 가죽 가방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피카부 백, 미국산 야생 엘라게이터 가죽을 사용해 패턴과 질감이 매우 고르고 부드럽다. 펜디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패턴링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돋보인다. 부드러운 동시에 각진 형태의 클래식한 스타일, 그에 상반된 화려한 내부 소재와 디테일로 라니아 요르단 왕비, 모니카 벨루치 등 세계적인 명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33.5X25cm 3천9백77만원, 문의 02-2056-9021

말프 로렌 퍼플 라벨 엘라게이터 리키 백 주문과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는 '메이드 투 오더(Made to Order)' 서비스로 탄생하는 만큼 완성도 높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최고급 악어 배 가죽만 사용해 고급스러운 빛깔과 질감이 특징. 엘라게이터 통가죽에 형태를 그려 이틀 손으로 직접 잘라 가방을 제작한다. 다양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스무 가지 엘라게이터 컬러, 여섯 가지 악어 가죽 안감, 그리고 두 가지 하드웨어는 선택 사항 중에서 골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백을 소장할 수 있다. 33X24cm 2천만원대, 문의 02-545-8200

질리아니 자말라 백 악어가죽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호주산 바다악어가죽을 사용한 자말라 백.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장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악어 비늘에 깊이를 더하는 명암 효과를 주어 강렬한 색감과 광택감을 더욱 살렸다.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는 가방 이름에 걸맞게 여성스럽고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스트랩이 있어 실용적이다. 36X30cm 2천만원대, 문의 02-6905-3752

콜롬보 오데온 백 콜롬보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백인 오데온 컬렉션. 예단으로 선택하는 베스트셀러 디자인으로, 상위 5%의 최상급 프루수스 바다악어가죽만 사용해 이탈리아 장인들의 손길로 완성되는 아이템이다. 상단보다 하단이 넓은 안정적인 사다리꼴의 세이프에 상단 덮개와 메탈 잠금장치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푸크시아 핑크, 만다린 오렌지, 옐로 등의 비비드한 컬러에서부터 블랙, 브라운, 그레이 등 차분한 분위기의 컬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컬러로 출시한다. 40X29cm 3천만원대, 문의 070-7130-9200

구찌 크로코다일 레이디 락 백 백의 대부분을 자물쇠로 여는 록 스타일의 메탈 클로저와 브렌드의 대표 아이콘인 뱀부 핸들이 돋보이는 럭셔리한 엘라게이터 토트백. 루이지애나 지역의 엘라게이터를 사용했으며, 여러 번의 특수 공정을 통해 글로시하고 반짝이는 표면 느낌을 완성했다. 35X26.5cm 3천7백만원대, 문의 1577-1921

비엘타 뮤즈 백 세계 최고 수준의 켈리터를 자랑하는 행롱 시의 악어가죽을 사용한 솔더 겸용 토트백. 장인에 의해 100% 수공으로 완성되는 프리미엄 엘라게이터 가방으로, 악어 고유의 텍스처를 그대로 살려 클래식함과 동시에 세련된 맛을 자랑한다. 고급스러운 광택과 산뜻한 컬러는 화려함을 더하고 전편 키클더에 표현한 브렌드 로고에서 고유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으며 레드, 그린, 오희스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33X26cm 7백70만원, 문의 02-6160-0202 에디터 권유진

top of the Bag

몇십 년 이상 대물림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악어 가방은 소위 상위 1%의 '노블레스 예단'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이템. 고급스러운 색감, 생동감 있는 텍스처, 이그조틱한 특유의 매력과 오히려 고품격 예물로 손꼽히는 하이엔드 악어 가방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엘라게이터 악어 가죽



Discover the new Autumn Collection.
Worn by Ko So Young, trendsetter in Korea.
Be inspired by Ko So Young's story and see her design at pandora.net/ko-kr

PANDORA
UNFORGETTABLE MOMENTS

현대백화점 대구점 본점 무역센터점 신촌점 천호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노원점 평촌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영등포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AK PLAZA 수원점 분당점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신라면세점 서울점 롯데면세점 월드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한국 공식 수입원인 (주)스타럭스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위의 매장을 책임, 관리, 운영하며, 위 매장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한하여 제품 보증을 해 드립니다. 공식 수입원 (주)스타럭스 www.starluxe.co.kr

refined Splendor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작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영혼의 터치가 담긴 하이주얼리 워치가 그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부셀론 아
주레 벨루트 아르데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
은 유선형의 아바 모티브가 소용돌이치며
빛을 반사하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워치.
투명하게 오픈된 다이얼 창이 더욱 특별하
다. 클래식하고 유니크한 주얼리 워치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6천8백만원
대. 문의 02-543-6523

워블로 클래식 퓨전 클리시코 울트라 씬
주얼리 투명하게 스텔레톤 차폐해 무브먼
트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이는 화려한 디자
인의 주얼리 워치. 워블로에서 자체 개발
한 2.9mm 두께의 새로운 무브먼트를
재현고, 다이얼은 45mm로 넓다. 베
젤에는 3.02캐럿에 달하는 54개의 바게
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케이
스에도 1.44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도 화려함을 극대화한다. 가
격 미정. 문의 02-2118-6208

블가리 디바 컬렉션 워치 올해 새롭게 선
보인 블가리의 새로운 주얼리 디바(Diva)
컬렉션을 대표하는 하이주얼리 워치. 이
탈리아 들레 비타 시대의 엘리자베스 테일
러와 리처드 바튼, 영화 <글래오피트라>
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강렬한 에이전시에
서 영감을 받았다.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
드, 에미스스트와 투르말린을 함께 세팅해
블가리 특유의 대담한 컬러 감각을 선보였
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2

빈들리프 아펠 팔레 드 라 샹스 코치넬 워
치 행운을 상징하는 무당 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강렬한 레드 컬러의 하이주얼리
워치. 르베 에-칼망 기법으로 성숙하게
장식한 다이얼의 이미지가 생동감 넘치는
우아함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
3440-5660

브래게 레인 드 네이플 8908 '여왕의 시
계'라 불리는 레인 드 네이플 컬렉션 론칭
10주년, 브래게 최초의 손목시계 발명 2
백 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워치. 블랙 타
히티 자개로 만든 다이얼의 독특한 아름다
움과 달의 움직임을 아름답게 표현한 12
시 방향의 문패이츠가 멋지게 어울린다.
537DR.L1 칼라바를 장착해 기계적으로도
완벽하게 완성했다. 팔목을 안아주듯 감싸
는 우아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8천8백만
원대. 문의 02-2118-6480

까르띠에 랜더 디반 워치 다이아몬드로 팬
더의 털을, 에-칼망 기법으로 반점을 표현
한 강렬한 워치. 로 오프로 도금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를 세팅해 더욱 우아하다. 작은 시 바늘
이 디자인에 방점을 찍는다. 가격 미정. 문
의 1566-7277 에디터 배미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ALL-NEW LINCOLN MKZ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살아있는 공기역학적인 바디라인과 링컨 스플릿 윙 그릴의 조화는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또한, 링컨 MKZ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선루프까지.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은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올 뉴 링컨 MKZ



lincoln-korea.com

송파 02)6928-3000	방배 02)6929-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강북 02)2246-2100	강서 02)2063-63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연대 051)741-5114	부산영 051)758-0075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 MKZ: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760 저속6단 복합연비(km/L) 10.2 도심연비(km/L) 8.5 고속도로연비(km/L) 13.3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080-500-3673, 02)517-4557 ※ 전국 2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classy Box

떠나는 마음만으로도 설레는 여행의 일정은 짐을 꾸리는 순간부터 시작한다. 쉽게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 견고한 기능성까지 두루 갖춘 케이스를 눈여겨보자.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고강도 신소재를 사용한 테크라이트 트렁크. 47X34cm, 1백20만원 **투미**. 고정적인 무드를 드러내는 원형 모노그램 재킷. 37X22cm, 4백20만원대 **루이 비통**. 담백한 맛이 묻어나는 캔버스 소재의 클래식 익스프레스. 36X55cm, 8백만원대 **에르메스**. 산뜻한 핑크 컬러의 에피 가죽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에피 파카세. 53X38cm, 5백20만원대 **루이 비통**. 바깥 밖의 시종인 오트 아 쿠루에 (Haute a Courier) 워크엔드 백. 48X43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펜디의 로고를 패턴으로 재현한 클래식한 트렁크. 70X44cm, 가격 미정 **펜디**. 파이 텐트 소재라 쉽게 오염되지 않는 블랙 트렁크. 48X37cm, 2백90만원대 **프라다**. 견고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토피즈 라인의 티셔츠 알티 힐. 70.67X46cm, 2백만원대 **리모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부드러운 형태에 로고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트렁크.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고 오염에도 강하다. 52X37cm, 3백만원대 **구찌**. 강한 내구성과 가벼운 무게가 조화를 이루는 파이어 라이트. 40X55cm, 64만원 **샘소나이트**. 에디터 **이예진**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4-7722 프라다 02-3218-5331 펜디 02-2056-9021 투미 02-546-8864 샘소나이트 02-3288-3770 리모와 02-546-3920

스타일링: 유정영

TRUE PRODUCTS, REAL PEOPLE



진실이
오른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RETRO 1921 GTX 3L JACKET
GORE-TEX® Products / MX1WG502

1921년에 탄생한 브랜드 헤리티지를 레트로 스타일의 패턴, 철제 컬러, 와펜으로 표현한 여성용 GORE-TEX® PRODUCTS JACKET ₩ 449,000



get it Device

예뻐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여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피부 관리 기기는
다소 비싼 비용임에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요즘 핫하다는 뷰티 디바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홈 케어의 진화, 뷰티 디바이스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한 해의 브랜드의 피부 미용 기기가 인다. 매일 밤 이 제품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피부가 매끈해지고 잡티가 희려졌다는 거다. 피부 변화를 몸소 체험한 이들이 피부과 시술보다 낫다. '드라이팅하디라고 생생한 촉감을 전하면서 한때 이 기기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몇 달 전엔 피부 클로저로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피부 관리기 후기를 포스트했는데, 해당 제품의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에 그녀의 이름이 오를 만큼 이 미용 기기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최근 뷰티 디바이스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빠른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에디터 역시 집에서 사용하는 뷰티 디바이스가 세 가지가 된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초음파 마사지기인 클렌징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가끔 뽀루지가 났을 때는 트러블 부위에 작용하는 기기 관리한다. 미용 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불규칙한 생활로 피부가 급격히 나빠지면서부터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고 피부와 시술에 의존하지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 이에 비해 미용 기기는 집에서 혼자 손쉽게 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원 이상의 관리 비용을 생각한다면 가격도 합리적이다. 게다가 실제 전문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시술 기기를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하니 효과에 대한 믿음이 배가된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 보다 효과일 것이다. 피부가 다시 태어날 정도로 드라이팅한 것은 아-하지만 사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피부 개선 효과가 크다. 또 화장품들 바를

때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흡수되고 각질이 정돈되어 피부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과하면 탈이 나는 법. 미용 기기를 사용할 땐 사용법과 환수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현명함이 더해져야 한다. 미용 기기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개선과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 사실을 잊지 말도록.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헤라 바이오스닉* 클렌징 인텐서 바이오스닉* 기술이 피부 인체의 환경을 정화해 모공, 각질,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진동 클렌징 기기. 다음 단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4.7배 높여준다. 15만원대, 문의 080-023-5454

클렌징 디바이스 초당 3백 회 움직이는 모션 작용으로, 손으로 세안할 때보다 무려 8배나 더 효과적으로 클렌징할 수 있다. 민감성 피부용, 남성용, 보습용 등 다양한 피부 컨디션에 특화된 브러시를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 27만원대, 문의 080-348-0030

뉴스킨 갈바닉 스파 시스템 II 에이저락 에디션 얼굴, 잡티, 보디, 헤어에 최적화된 4개의 컨덕터와 부양력으로 차별화된 트리트먼트 젤을 사용해 관리하는 뷰티 디바이스. 피부 상태에 따라 시스템들 자동으로 설정해주어 사용이 편리하다. 40만원대, 문의 1588-1440

트리아 스킨 퍼펙팅 볼루 라이트 전문 클리닉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볼루 라이트와 동일한 기술로 개발한 가정용 여드름 치료기. 여드름 박멸이론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울긋불긋해진 피부 톤을 개선한다. 34만5천원, 문의 080-369-3300

신트 리쥬 피부 치료 효과가 입증된 LED 레이저 광선과 프라하렐 열매-엑기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진피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 주름과 잡티를 비롯한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개선한다. 34만원, 문의 080-246-1234 에디터 권유진

2013 a Sporting Life

1987년, 에르메스의故 장-루이 뒤마 회장은 창업 1백50주년을 맞이하며 에르메스의 넘치는 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했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겨울 불꽃놀이'였다. 에르메스의 새로운 전통이 된 '올해의 테마'는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대해 정해지는 에르메스의 테마는 전년도 테마의 연속이자, 그다음 해의 테마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작업이다. 올해의 테마는 'A Sporting Life'이다. 더없이 활기차고, 더없이 창의적이며, 더없이 스타일리시한! 이제, 몸과 마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그 순간을 즐길 차례이다.

에르메스, 우아한 스타일의 스포츠 세계를 지향하다

올해 에르메스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즐거움과 낙관적인 기운으로 전환하고자 'A Sporting Life'라는 활기찬 테마를 선정했다. 'Chic, le Sport!'라고도 표현하는 이번 테마는 단순히 스포츠를 기념하거나 육체적인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스포츠와 에르메스 오브제, 컬렉션이 맺는 상관관계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A Sporting Life'라는 테마는 스포츠가 스타일이나 하우스에 준 심미적이고 윤리적인 영감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12년에 즐거운 시간 여행을 다녀온 에르메스는 2013년에 좀 더 힘차게 가사를 걸려고 한다.

스포츠는 여유로운 시간에 만끽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기념하는 연상선에 있으며 아웃도어 활동이나 육체와 정신을 모두 풍요롭게 하는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인생을 즐기는 수단이며 본인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레크리에이션 개념의 스포츠는 에르메스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말안장 제작으로 브랜드의 역사를 시작한 에르메스는 유럽 각 도시에서 마차를 끄는 말을 위한 최고의 안장용품들을 만들고 경주마를 위한 실크 제품을 제작했으며, 후에는 골프나 스키 의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폴로, 테니스, 요트, 그리고 경비행기 등의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들과 거저서 영감을 받아 제작하는 에르메스의 오브제를 기념하기 위한 테마인 셈이다.

명실할 것은, 올해 테마인 스포츠가 본질적으로는 '게임'이라는 사실이다(현대의 게임은 거대 비즈니스, 정치, 국제 정세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활용한 게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유연성을 발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를 웃음 짓도록 만드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또 운동은 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활동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로 가는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서 엔도르핀이 늘어나면서 행복한 감정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운동 효과는 모르핀 주사로 형성되는 각성 효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한다.

에르메스는 스포츠에 내포한 가치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마추어들이 만들어낸 스포츠 정신, 즉 페어플레이, 팀워크, 규칙을 준수하는 정신, 열정, 긍정적 마인드, 그리고 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에르메스에서 스포츠 정신은 특정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데 영감을 준다. 에르메스 시크가 종종 스포츠 시크로 불리기도 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2013년에도 에르메스는 우아한 스타일의 스포츠 세계를 지향하며, 'Hermès is Elegance in Motion'이라는故 장-루이 뒤마의 정신을 이어나가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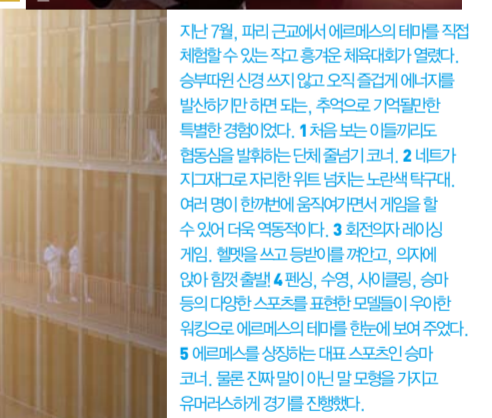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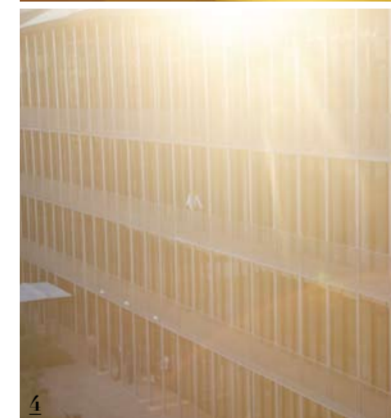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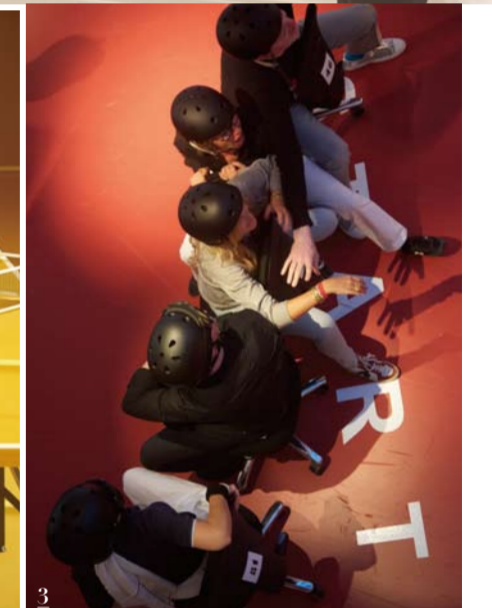
《Le Monde d'Hermès》에 등장하는 2013년 테마

故 장-루이 뒤마 회장은 매년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에르메스에서 발견하는 《르 몽 데르메스(Le Monde d'Hermès)》 첫 장에 테마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의 아들 피에르-알렉시 뒤마(Pierre-Alexis Dumas) 에르메스 총괄 이티스트 디렉터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글에는 테마와 관련해 에르메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내포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에르메스의 테마 2004 상상의 해 (The year of Colors and Fantasies), 2005 강의 해 (The Year of the River), 2006 파리의 해 (The Air of Paris), 2007 춤의 해 (The Dance), 2008 인도의 해 (India), 2009 여행의 해 (Escape), 2010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Itales to be Told), 2011 이 시대의 장인 (Contemporary Artisan), 2012 시간의 선물 (The Gift of Time), 2013 우아한 스포츠 (A Sporting Life)

'Chic, le Sport!'

"이것이 우리의 활력 넘치는 2013년 테마입니다. 물론 에르메스 스포츠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에르메스의 스타일에 영감을 주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다시 젊게 만들어준 스포츠. 에르메스가 웃음 입혀 출진시킨 첫 선수 가 말이 아니겠지요? 설마 가련이 된 확고한 이 동맹과 성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에르메스의 스포츠는 편안함과 우아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경기의 황홀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움직이는 몸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합니다. 스포츠가 선사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상냥하고 기복적이며 창의적이고, 기분을 전환시키는 즐거움이 아닐까? 우리에게 스포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출발장에서 준비하시고, 에르메스의 세계를 열어보세요!" 피에르-알렉시 뒤마, 에르메스 총괄 이티스트 디렉터(우아한 스포츠 LMH Vol.1, 2013 발췌)



Be a Gentleman

청명한 하늘이 드리우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빅 패션 하우스들의 2013 F/W 남성 컬렉션. *photographed by jang duk hwa*



(왼쪽) 레오파드 롱코트, 레드 니트 톱,
블랙 팬츠, 블랙 첼시 부츠 모두 **버베리**
프롬섬, (오른쪽) 레드 컬러 싱글 코트,
화이트 톱, 그레이 팬츠, 레오파드 부츠,
레오파드 부츠 백 모두 **버베리** **프롬섬**.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선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블랙 티셔츠 재킷,
블랙 셔츠, 블랙 팬츠,
모두 **생로랑**.



(왼쪽) 그레이 슈트,
그레이 베스트, 그레이 패턴
셔츠 모두 **보테가 베네타**,
(오른쪽) 핑크 컬러 더블 슈트,
그레이 셔츠, 베이지 타이
모두 **보테가 베네타**.



그레이 니트 롬, 옐로 터틀넥, 핑크 팬츠, 네이비 슈츠 모두 에르메스, 그린 토트백 토즈.



핑크 라운드 니트, 그레이 터틀넥, 블랙 팬츠, 아이보리 다들 백 모두 에르메스.

(왼쪽) 브라운 체크 코트, 레드 니트 롬, 블루 체크 셔츠, 블랙 팬츠 모두 프라다.
(오른쪽) 레드 컬러 레더 재킷, 블루 니트 롬, 그레이 체크 팬츠 모두 프라다.





(왼쪽) 블랙 & 화이트 체크
수트, 베스트, 화이트 셔츠 모두
에르메네지질도 제나. 블랙 부츠
보태가 베네타. 블랙 타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오른쪽) 블랙
& 화이트 체크 더블수트, 화이트
셔츠 모두 에르메네지질도 제나.
블랙 & 브라운 부츠 보태가 베네타.
블랙 타이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블랙 더블 재킷
말프 로렌, 블랙 터틀넥,
그레이 팬츠 모두 랑방.



(왼쪽) 오렌지 컬러 재킷
폴 스미스, 그레이 터틀넥
포르벨리아니.
(오른쪽) 퍼플 컬러 체크 재킷
폴 스미스, 아이보리 터틀넥
포르벨리아니.

네이버 재킷, 블루 패턴 셔츠,
대님 팬츠 모두 테드 베이커,
버건디 더플백 구찌, 버건디
패턴 로퍼 파치오티.



버건디 벨벳 턱시도 슈트,
화이트 셔츠, 블랙 보타이
모두 휴고 보스,
골드 프레임 인경 트리터.



헤어 & 메이크업 김환
모델 김원중, 제이문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혜민
에디터 권유진

구찌 02-3444-3169
버버리-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생 로랑 02-549-5741
프라다 02-3442-0939
랑방 02-6905-3582
테드 베이커 02-310-1556
휴고 보스 02-515-4088
말프로렌 02-545-8200
토즈 02-3448-8105
에르메스 02-547-0437
폴 스키스 02-6957-5815
보테가 베네타 02-515-2717
에르메네집도 제나 02-6905-4790
트리티 02-3446-8556
파치오티 02-545-8757
코르넬리아니 053-254-0078



(왼쪽) 블루 니트 터틀넥, 그레이 팬츠,
블랙 글러저 모두 구찌, 블랙 첼시 부츠
버버리, (오른쪽) 스카이 블루 더플 코트,
그레이 터틀넥, 화이트 팬츠,
패턴 스카프, 블랙 부츠 모두 구찌.



쿼트르 클래식
 옐로, 핑크, 초콜릿, 화이트까지 네 가지 컬러의 골드 밴드를 결합한 초콜릿 쿼트르 클래식 컬렉션. 프랑스어로 숫자 '4'를 의미하는 쿼트르(quatre)는 강한 결속력을 상징해 커플 링으로 제격이다. 부쉐론 고유의 네 가지 모티브를 정교하게 가공해 모던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모두 부쉐론.



쿼트르 웨딩 링
 고유한 쿼트르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솔리데어로 세팅해 여성스럽게 완성한 링. 남성은 심플한 밴드 링으로, 여성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디자인으로 선택하면 완벽하다. 모두 부쉐론.

Superior quatre

주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고귀한 소재인 골드의 컬러와 형태를 네 가지 모티브로 정교하게 세팅한 부쉐론의 쿼트르 컬렉션.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더욱 클래식하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쿼트르 블랙&화이트 에디션 링
 기존 쿼트르 클래식의 초콜릿 골드 모티브를 블랙과 화이트 골드를 매치한 블랙 에디션, 세 가지 골드에 화이트 세라믹을 결합한 화이트 에디션으로 변주했다.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화려한 디자인도 아름답다. 모두 부쉐론.



쿼트르 이어링&네크리스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는 쿼트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네크리스와 이어링. 모두 부쉐론. 문의 02-543-6523 에디터 배미진

the most fabulous Jewel

아름답고 값진 원석만 다루어온 영국의 명망 높은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Graff). 그라프의 드라마틱한 서울 데뷔를 통해, 드디어 한국에도 진정한 하이 주얼리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다.



진정한 하이 주얼리, 그라프

최고의 보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디자인과 브랜드, 역사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는 바로 원석의 퀄리티다. 지난 8월 리뉴얼한 장충동 신라 호텔에 국내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한 영국의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정식 명칭은 Graff Diamonds)는 오랫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답고 값진 원석만 다루어왔다. 다이아몬드의 퀄리티를 보장받고 싶다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로렌스 그라프(Laurence Graff)의 손을 거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영국의 4등 훈장 수훈자이며 그라프의 설립자이자 현재 회장인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왕'이라 불린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다이아몬드에 대한 열정을 1960년 그라프를 설립하며 꽃피웠고,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그는 "다이아몬드는 내 평생의 열정이다. 첫 번째 다이아몬드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원석을 들여다보며 순식간에 매혹되었던 그 경이로움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국내 주얼리 고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이지만, 런던, 뉴욕, 제네바, 홍콩에 거점을 둔 그라프는 전 세계에 40여 개에 달하는 부티크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012년에는 런던 뉴 본드 스트리트에 새롭게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고, 올해는 아부다비와 서울에 부티크를 오픈해 국내에서도 그라프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의 볼브(Bombé) 네크리스와 이어링. 2 타이베이 그라프 샵. 3 2013년 새롭게 선보인 그라프의 광고 캠페인. 볼브한 컬러 스톤과 유니크한 디자인은 그라프 디자인의 핵심적인 요소다. 4 볼브 스톤을 세팅한 볼브 링. 5 다이아몬드를 나비 모티브로 세팅한 버터플라이 워치. 다이얼 안쪽에 루비를 세팅해 신비롭다. 6 그라프의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 회장. 7 남아프리카 와인랜드 중심에 위치한 그라프 소유의 복합 관광 단지인 '달래어 그라프 에스테이트'. 포도밭과 럭셔리 로지, 스파는 물론 그라프 부티크까지 갖추고 있다.



집념으로 완성한 최고의 다이아몬드 컬렉션

그라프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데는 단연 퀄리티와 아름다운 주얼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다이아몬드에 대해 '집념'이라 표현할 만큼 열정을 갖고 있는 로렌스 그라프는 세계에서 열여덟 번째로 큰 원석인 4백93캐럿 레츠엔그 레거시(Letseng Legacy)와 최근에 발견한 4백78캐럿 라이트 오브 레츠엔그(Light of Letseng)를 모두 구입하는 박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인 6백3캐럿 레스토 그라미스를 구입해, 새로운 커팅과 폴리싱 작업을 거쳐 3.14~76.41캐럿에 이르는 26개의 화려한 보석으로 재가공해 보석으로서의 가치와 금전적인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내 주얼리 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는 그라프가 모든 방향의 '퀄리티'를 최고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다. 이 때문에 그라프는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도매 및 제조사인 SAFDIC(South African Diamond Corporation)을 그라프 그룹의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 다이아몬드의 폴리싱과 커팅을 담당하는 남아프리카 최대 생산 업체 중 하나다. 채굴과 폴리싱은 물론 격조 높은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주얼리 메이킹 전 과정에 참여하기에 그중 최고의 다이아몬드만이 그라프 주얼리를 위해 선별되는 것이다. 또 신라 호텔에 위치한 샵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그라프 디자인의 특별함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나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보석을 단지 부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여기에 고급스러움과 퀄리티를 컬렉션의 핵심으로 두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라프의 모든 보석은 그라프 런던 공방에서 디자인해 무결점의 세팅 과정까지 모두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진다. 그라프에서 훈련받은 숙련된 장인들은 아름다운 그라프의 수준 높은 세팅 기술을 재현해왔다. 실제로 그라프의 주얼리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앞에 서린 안개가 사라지듯, 명료하고 환상적인 디자인을 실감하게 된다. 보석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주얼리를 선보이는 그라프의 국내 진출은, 주얼리 시장과 고객의 눈높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배미진



Swarovski by Shourouk_Fancy

빈티지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컬렉션. 과감한 카스텔 주얼리 디자인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프랑스 디자이너 슈룩 레임(Shourouk Raïem)과 컬래버레이션에 대담하게 완성했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핏 핑크 컬러 코튼 필자에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세팅한 브레이슬릿 18만5천원, 그린 컬러 스와로브스키 이어링 63만원, 한 마리 공작새처럼 화려한 네크리스 63만원, 브레이슬릿과 같은 모티브의 네크리스 18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컬렉션.



Crystal Brooch

인도의 마하라자(Maharaja) 왕국에서 영감을 받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우아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13년 F/W를 대표하는 시크릿 트레저 컬렉션의 아름다운 브로치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듯 2개의 핀던트가 연결되어 있는 유니크한 브로치 16만5천원, 다이아몬드 형태로 모던하게 표현한 스커어 브로치 21만5천원, 클래식한 고전 양식 브로치 21만5천원, 섬세한 것들을 연상케 하는 브로치 24만원, 나비 모티브 브로치 21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Secret treasures

1백18년간 아름다운 크리스털 주얼리를 선보여온 스와로브스키, 2013 F/W를 대표하는 시크릿 트레저(Secret Treasures) 컬렉션에 프랑스 디자이너 슈룩(Shourouk)과 컬래버레이션한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라인, 여기에 새로운 위치와 브로치 컬렉션까지 더해 볼드하고 강렬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warovski by Shourouk_Black

과감한 디자인에 블랙 컬러로 접미미를 더한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컬렉션.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볼드한 이어링 27만원, 투명한 스와로브스키 원석을 빈티지하게 세팅한 볼드 링 21만5천원, 블랙 코튼 필자에 폴리워 모티브 핀던트를 매치한 브레이슬릿 18만5천원, 실크 소재에 핀던트를 매치한 네크리스 37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by 슈룩 컬렉션.



New Watches

스와로브스키에서 아심차게 선보이는 2013년 새로운 바젤 워치 컬렉션.

(왼쪽부터) 16개의 투명 자르코나아 스톤이 원을 그려면서 미끄러져 다아열 주위를 움직이는 라블리 크리스탈 블랙 밴드 워치 70만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최전식 블랙 세라믹 베젤이 유.크한 옥타워 워치 89만원, 스테인리스 스틸 밴드에 골드 컬러 코팅을 더해 우아한 매달 라블리 크리스탈 워치 98만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1661-9060 에디터 배미진

Ultra firming up

V 리프팅 에센스, 더블 세럼, 파란 에센스 등 메가 히트 상품으로 각종 애칭을 탄생시키며 페이스부터 보디에 이르기까지 약 35년간 탄력 케어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클라란스에서 9월, 노화로 느슨해진 피부 속 탄력 고리를 탄탄하게 다시 연결해줄 '엑스트라-퍼밍 데이 & 나이트 크림'을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전 세계에서 7초에 1개씩 판매되는 크림

팽팽했던 풍선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서서히 빠져 주름지듯 피부도 나이가 들에 따라 탄력을 잃는다. 25세를 기점으로 피부 속 탄력 인자가 감소되기 시작해, 30세에 접어들면 그 속도는 약셀을 밟은 앤진처럼 무섭게 가속도가 붙는다. 동안을 결정짓는 건 이 속도를 늦추고 늘어진 피부 탄력을 얼마나 팽팽하게 잡아 끌어 올리냐에 달려 있다. 1978년 처음 선보인 엑스트라-퍼밍 크림은 네 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력해진 탄력 케어 제품들을 출시해왔으며, 7초에 1개씩 판매되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하며 15년간 프랑스에서 No.1 안티에이징 크림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올가을 클라란스가 다시 한 번 안티에이징과 탄력 케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새로운 '엑스트라-퍼밍 데이 & 나이트 크림'을 출시한다.

피부 탄력, 연결 고리가 해답이다

30년간의 안티에이징 연구 끝에 클라란스는 탄력의 고리를 탄탄하게 다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민족 식물 약학 전문가인 장-피에르 니콜라스와의 협업을 통해 오가닉 그린 바나나와 오가닉 레몬 타인 추출물이 피부 속 탄력을 담당하는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해주고, 노화에 의한 탄력 저하로부터 피부 구조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털 익은 과일에서 추출한 오가닉 그린 바나나 추출물은 피부 탄력과 재건에 독보적인 작용을 하며 피부 속 섬유와 세포 사이의 연결을 탄탄하게 한다. 이 유효 성분을 담은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은 피부 깊은 곳에서 탄력을 담당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서로 연결하고 활성화해 노화로 피부가 느슨하게 처지는 것을 예방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 아시아 여성 1백2명을 대상으로 4주간 테스트한 결과, 93%가 피부가 탱탱해짐을 느꼈고, 90%가 탄력이 생겼다고 답했으며 80%가 피부 주름이 눈에 덜 띈다고 만족도를 평가했다. 또 실제 클라란스 평가 연구 센터에서 6주간의 피부 변화 측정 시 -12.7%의 주름 깊이 감소, +11.1% 피부 탄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사이 피부 자가 재생 능력을 보호

일반적으로 피부는 자가 재생 과정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스스로 예방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는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나이트 뷰티 케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클라란스는 밤사이 피부 자가 재생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피부 표면은 물론 속의 주변 환경까지 이중으로 보호해주는 라이스 펩타이드 성분을 '엑스트라-퍼밍 나이트 크림'에 담았다. 또 여기에 로티스 뿌리에서 추출한 로티스 짐바이오솜™ 성분을 더해 인색을 고르고 환하게 유지시키는 효능을 발휘한다. 이 역시 6주간의 피부 변화 측정 시 +14.2% 탄력이 증가했으며, 피부과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 사용 여성 중 66.7%가 주름 방지 효과가 월등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은 각각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효과를 선사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했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벨벳 같은 텍스처로 마치 쿠션처럼 탱탱하게 녹아들어 피부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특징이며, 다음 단계 메이크업의 흡수력을 높여 매끈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 50ml 11만원, 엑스트라-퍼밍 나이트 크림 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dual Effect

한낮에 뜨거운 태양 빛을 받았다면, 밤 동안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피부 자극을 완벽하게 잠재우기 어렵다. 낮과 밤의 케어를 달리해 건강한 피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매치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낮을 지켜줄 소선보크림과 밤을 케어해줄 청운수당팩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열을 케어해 노화를 막는다, 소선보크림

낮 동안 수많은 자극을 받은 피부는 쉽게 늙는다. 여러 자극 중 최근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것은 '열(熱)'이다. 햇빛, 혹은 음식을 할 때 느끼는 외부의 열기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탄력 저하, 주름 생성, 붉은기가 늘어나게 되는 것. 피부 표면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고온 상태일 때 피부는 손상을 받는다. 즉 '열'이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낮 기온이 여전히 높은 요즘 같은 시기에 피부는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자극을 케어하지 않고, 밤 전용 제품에만 의지한다면 반쪽짜리 안티에이징 케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데이 안티에이징에 특화된 설화수의 소선보크림은 자외선 차단 기능(SPF 30, PA+++))은 물론 다소 생소한 열 차단 지수인 'TPF 40'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이는 피부 온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열 차단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설화수의 소선보크림이 외부 열의 영향을 40%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 차단제가 말 그대로 자외선을 차단한다면 소선보크림은 열과 자외선을 모두 차단해 주름 생성과 탄력 저하를 막는 것이다. 이 제품은 2010년 8월 출시해 지금까지 1분당 1.3개씩 판매되고 있는데 출시 당시, 그리고 최근에도 품절을 기록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외부 열을 다스려주는 편백나무, 열 자극을 진정시키는 오메, 주름을 개선해 피부의 힘을 키워주는 홍삼 시포닌 성분까지 담아 주름 개선 기능 인정까지 받았으니 진정한 데이 안티에이징 크림이라 할 수 있다. 낮에 수시로 가볍게 바르는 제품인 만큼 편안한 텍스처 덕분에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펌프형으로 원하는 만큼 덜어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50ml 15만원대.

쿨링 케어로 동안 온도 31℃를 사수하라, 청운수당팩

그렇다면 힘을 잃고 지친 피부를 위해 밤에는 어떤 케어가 필요할까. 건강한 피부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 31℃다. 하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직사광선을 받으면 15분 이내에 피부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 낮 동안 얼굴 피부가 화끈거림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순간적인 현상이지만, 피부 나이에 큰 영향을 주는 열기와 화끈거림을 방지한다면 탄력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외부의 열기는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고 주름과 기미 생성을 촉진해 노화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에 열을 내리고 피부 온도를 31℃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쿨링' 케어가 필요하다. 수분 공급과 쿨링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산뜻한 텍스처의 젤 타입 마스크 팩이다. 영양과 보습, 쿨링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뿐 아니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 사용하기에 좋다. 가벼운 텍스처의 '청운수당팩'은 청매실 추출물이 담겨 있어 바르는 순간 시원한 기분이 들 정도로 쿨링 효과가 뛰어나다. 얼굴 전체가 순간 시원해지는데, 자극적인 느낌은 전혀 아니다. 팩을 한다기보다는 수분크림을 바르는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산뜻한 텍스처는 여름철 외부 온도로 달아오른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한다. 많은 사람들이 밤 전용 마스크 팩 제품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 진정 작용만 생각하지만 청운수당팩은 늘어진 모공과 피지 조절에 특화를 보유했을 정도로 피부 탄력에도 효과적이다. 솔잎, 라벤더 등 식물성 에센셜 오일 100%의 천연 향이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 잠들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도톰하게 바른 다음 10분 후, 혹은 다음 날 아침 씻어 내면 된다. 80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배미진**

anti-aging Therapy

요즘 제일 잘나가는 톱스타이자 여배우인 공효진과 차화연이 만났다. 도대체 왜? 나이도, 성향도 다른 이 두 배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이에 비해 피부가 어리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30대의 공효진과 50대의 차화연은 나이는 달라도 같은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비오템의 안티에이징 라인인 '블루 테라피'.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누가 사용해도 만족할 만한 확실한 효과를 자랑하는 블루 테라피, 그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피부 노화의 80%는 개선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쇠퇴하고 늙는다. 중국 진시황이 이를 거스르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늙고 싶지 않은 욕망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늙더라도 건강하고 예쁘게, 노화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웰 에이징'이 대세라는 것이다. 먼저 노화의 원인부터 짚어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세포는 그 기능이 쇠퇴하는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가리켜 자연 노화라고 한다. 여기에 자외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 외부 자극의 공격을 받아 생긴 후천적인 노화가 더해지면 피부 나이가 결정되는 것(자연 노화 + 후천적 노화 = 피부 나이). 시간을 멈추지 않는 이상 자연 노화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후천적인 노화만큼은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5~10년은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비오템 연구진들은 60년간 피부에 대한 끝없는 연구 끝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자연 노화는 20%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외부 자극으로 생기는 노화가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우리가 고민하는 주름, 잡티, 늘어진 피부의 약 80%는 자외선과 오염, 스트레스로부터 방어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트러블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후천적 노화를 잘 컨트롤한다면 나이에 비해 어리 보이는 피부를 갖는 데 80%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안티에이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하나의 안티에이징 신제품이 탄생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화장품도 옷을 찍어내듯 푹푹푹푹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성분 하나를 발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적어도 10년에서 30년의 세월이 소요되는 것은 기본이다. 매년 성분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안티에이징 제품이 쏟아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다. 그만큼 획기적이라 할 정도로 눈에 띄는 성분과 기술이 없는 탓일 것이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60년간의 연구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내민 브랜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비오템이다. 그동안 수분 케어로 두터운 신뢰와 명성을 쌓아온 비오템의 안티에이징 신제품인 만큼 믿을 만하다. '씨보고 싶더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노화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새롭다. 앞서 설명했듯 전체 노화 중 80%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비오템이 밝혀낸 이론. 이를 바탕으로 피부가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마스크와 같은 막을 축적해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세 가지 피부 노화 징후(주름, 피부 탄력 저하, 칙칙한 피부 톤)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점에 주목. 후천적 노화로 나타나는 세 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케어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의 '블루 테라피' 라인을 탄생시켰다. 4주 만에 탄력 있는 투명한 피부 톤, 주름 하나하나까지 개선해 눈에 띄게 어리지는 피부로 가꿔준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만큼 확실한 효과를 자신하는, 획기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임에 틀림없다.

신비의 물을 탐구하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자 비오템 전 코즈메틱 라인의 핵심은 바로 '물'이다. 이들은 깊은 물속에 존재하는 플랑크톤, 미세 조류, 박테리아 등 무려 10억 가지에 이르는 수많은 생명체가 지구 탄생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해왔을 만큼 무한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굳게 믿어왔다. 1952년 온천수 속의 플랑크톤을 근간으로 탄생한 비오템은 플랑크톤의 강력한 피부 친화력을 발견하고 이를 피부에 집중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여성의 모든 피부 고민을 연구해왔다. 수분크림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아이코닉한 제품을 탄생시킨 수분 제품의 선두 브랜드답게 온천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바다, 호수, 강, 빙하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물을 연구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지닌 유효 성분을 피부 과학에 접목했다. 덕분에 어떤 브랜드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특허 성분과 기술을 탄생시켰다. 이번에 출시하는

“피부 노화는 20% 정도가 자연 노화이고 나머지 80%는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대요. 80%나 가능성이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예요.” *비오템 모델 배우 공효진*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은 모든 여성들에게 비오템 블루 테라피를 추천할게요.” *비오템 안티에이징 모델 배우 차화연*

안티에이징 라인 블루 테라피 역시 물속에 존재하는 해양 추출물에 근간을 둔다. 물속 생물의 무한한 생명력과 에너지, 강력한 재생력, 풍부한 영양 성분이 지닌 안티에이징 케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셈이다.

35억 년 전 지구상에 존재한 해양 생물, 블루 알갱이

블루 테라피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해양 성분은 블루 알갱이. 생소한 생명체인 블루 알갱이는 미세알이 풍부한 미국 클레머스 호수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작디작은 미생물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던 35억 년 전부터 스스로 산소를 발생시키고 단백질을 저장하며 살아온 신비의 생명체. 이를 처음 발견한 인디언들은 이를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기며 그들만의 방법으로 가공해 복용하고 피부에 도포했을 정도로 강인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을 지녔다. 비오템 과학자들은 물속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집념 끝에 이 블루 알갱이가 사람의 피부와 닮아 피부 친화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와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1년 중 영양 상태가 최고조에 이른 블루 알갱이를 채취해 블루 테라피에 담는 데 성공한 것. 여기에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해양 성분을 더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프랑스와 영국 연안의 켈트 해에서 발견한 L, 오쿠로루카 해초 성분과 미세알이 풍부한 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온천수에 번성하는 활성 스파 플랑크톤이 바로 그것. 특히 켈트 해의 거친 파도와 조류를 견뎌내는 L, 오쿠로루카의 세포막에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강력한 저항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피부결을 견고하고 탄탄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블루 테라피 라인 중 에센스에만 함유된 활성 스파 플랑크톤은 35가지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당질, 지질, 그리고 미량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또 액티브 C 성분을 더해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며 피부 톤을 생기 있게 개선하는 집중 효과를 발휘한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안티에이징 케어

블루 테라피의 첫인상은 촉촉하다는 것이다. 기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리치하다, 무겁다는 인상으로 20~30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에 어려웠다면 블루 테라피는 다르다. 패키지도 심해를 연상케 하는 청명한 블루 컬러에, 수분 라인의 선두 브랜드답게 탄탄한 기본기가 엿보인다. 스킨, 로션, 세럼, 아이크림, 크림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 블루 테라피는 피지 분비가 많은 남성이 사용해도 좋을 만큼 부드럽고 산뜻하다. 특히 메인 제품인 블루 테라피 세럼은 피부에 문지르면 수분을 머금은 듯 촉촉하고 시원하게 스며든다.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이지 않으며 피부가 즉각적으로 매끈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뜻하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세럼만 발라도 풍부하게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다. 에센스 스킨 역시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결을 정돈하는 것은 물론 안티에이징 효능을 배가시키고, 부드러운 질감의 아이크림은 예민한 눈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케어한다. 모든 케어를 꼼꼼히 마친 후 마무리 단계에 크림을 바르면 울퉁불퉁한 피부 요철이 매끈해지고 피부에 탄력이 생긴다. 비오템은 블루 테라피 모델로 공효진과 차화연 배우 차화연을 캐스팅했을 만큼 젊은 연령층과 40~50대 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배우 차화연은 “비오템은 어린 친구들이 쓰는 제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에게 맞는 제품이 있어 놀랐어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주름과 피부 탄력인데, 블루 테라피 라인을 다 바르고 나면 확실히 피부 윤기가 살아나고 팽팽해지는 것을 느껴요”라고 말한다. 이처럼 노화의 티끌을 기쁘히 지내가고 싶은 건 나이 이룰 불문하고 누구나 꿈꾸는 일이다. 남들보다 어리고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80%의 가능성, 비오템의 블루 테라피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블루 테라피 에센스 스킨 125ml 6만 원대, 블루 테라피 아이크림 15ml 6만 5천 원대, 블루 테라피 에센스 30ml 9만 원대, 블루 테라피 밀키로션 75ml 7만 원대, 블루 테라피 크림 50ml 8만 원대. 문의 080-022-3332 *메디칼 권유진*



피부 고민별로 작용하는 블루 테라피 농축 성분

 <p>블루 알갱이 성분으로 부위별 주름 고민 완화</p> <p>35억 년 전부터 존재하며 스스로 산소를 발생시키고 단백질을 저장하며 살아온 신비의 생명체로 피부 친화력이 뛰어나다. 피부결을 개선하고 이마, 미간, 입가, 표정 주름 등 부위별 맞춤 관리를 통해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p>	 <p>L, 오쿠로루카 해초 성분으로 피부 탄력 강화</p> <p>거친 파도가 물이치는 바다에서 생존하는 L, 오쿠로루카의 세포막에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강력한 저항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이 피부 탄력을 강화하고 피부결을 견고하고 탄탄하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p>	 <p>활성 스파 플랑크톤 성분으로 투명한 피부 톤 완성</p> <p>프랑스 피레네 산맥의 미세알이 풍부한 온천수에서 번성하는 활성 스파 플랑크톤은 35가지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당질, 지질, 그리고 미량원소를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액티브 C 성분과 함께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한다.</p>
--	---	---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큐보>와 비오템이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의 신제품 '블루 테라피 에센스 5ml(1만1천원 상당)'를 증정합니다.

◆ 기간 2013년 9월 4일(수)~6일(금), 3일간
◆ 교환 매장 전국 비오템 매장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합니다.



3 367723 643318

Power lift

아무리 피부가 매끈하고 촉촉하더라도 깊고 미운 두 줄의 팔자주름이 있다면 인상은 순식간에 매섭고 우울해진다. 안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더불어 피부 톤, 피붓결까지 개선하는 멀티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출시 후 1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시세이도 팔자주름 크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년 동안 뛰어난 효과로 인정받은 팔자주름 크림
작년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던 얼굴선이 방심하는 사이 두무뎡술하게 흐트러지고 입가의 팔자주름이 웃지 않아도 잡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눈가 주름은 '눈웃음' 혹은 '애교'로 간주되더라도 하지만 입가의 팔자주름은 얘기가 다르다. 심통 난 볼도 그처럼 축 처진 볼 살과 함께 짙게 드리운 팔자주름은 인상을 사납고 우울하게 만드는 옥의 티다. 이처럼 30~40대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볼륨감이 폭 꺼지는 볼 살과 도드라지는 팔자주름이다. 자가 지방 주입 시술, 팔자주름 필러 등의 시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삿바늘에 대한 두려움, 높은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팔자주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시세이도 리바이탈 바이탈-퍼펙션 사이언스 크림 AAA(팔자주름 크림)이다. 그만큼 팔자주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화장품은 시세이도가 단연 독보적. 사용한 지 어느덧 세 달째 접어든 지금, 팔자주름이 완화되고 피부에 확실한 탄력이 생긴 것을 실감한다. 출시 1주년을 맞이한 팔자주름 크림은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불과 몇 년을 리프팅하는 동시에 피부에 광채를 더하는 멀티 기능성을 자랑한다. 이토록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신성분인 첨가 및 추출물 AAA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 피하 지방세포가 크고 무거울수록 팔자 주름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큰 지방세포를 작은 지방세포로 변화시키는 것이 첨가 및 추출물 AAA의 역할이다. 이는 팔자주름의 원인이 되는 큰 지방세포의 소멸을 촉진하고, 피부의 양성 인자인 작은 지방세포의 생성을 활성화해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독자적인 복합 성분인 시세이도 VP8을 함유해 멜라닌 색소의 과잉 생성을 막아 투명하고 매끈한 피부로 가꿔준다.

수백 번의 테스트로 완성한 텍스처와 향
팔자주름 크림은 시세이도의 독자적인 기술력, 건강한 피부를 위한 집념과 노력을 집약해 탄생시킨 결정체다. 이를 증명하는 건 뛰어난 효과이겠지만, 이슬처럼 촉촉하게 녹아드는 텍스처 역시 한몫을 한다. 시세이도의 텍스처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이다. 발림성과 흡수력이 민감한 아시아 여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백 번의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 제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팔자주름 크림은 한눈에 보면 리치한 크림 제형이지만 피부에 묻히르는 순간 물방울이 맺히듯 녹아들어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수분 유틸리티를 감싸고 있는 리치 오일이 녹으며 피부에 보습막을 씌우고 시원하고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향 또한 예사롭지 않다. 백합의 우아한 향기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알려진 장미, 재스민 향기를 더해 스킨케어를 하는 동안 릴랙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팔자주름 크림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싶다면 시세이도 골드 세럼을 함께 추가해보자. 피부의 가장 큰 세 가지 고민인 잡티, 칙칙함, 어두움을 완화하는 안티에이징 효과의 미백 세럼으로, 고르지 않은 피부 톤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눈 아래, 입 주변 피부가 처지는 현상을 개선해 어떤 각도에서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더불어 알란토인과 비타민 E, 유도체로 구성된 바이탈 에너지징 시스템이 멜라닌이 있는 표피세포의 턴오버 기능을 향상시켜 끈질긴 잡티 생성의 사이클을 차단한다. 팔자주름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주름 개선은 물론 안색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 동안 피부의 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세안 후 피붓결을 정돈한 뒤 골드 세럼을 톱, 볼, 눈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고, 팔자주름 크림을 고민이 되는 입가 주위에 집중해 발라 마무리하면 된다. 팔자주름 크림 40ml 26만원, 골드 세럼 40ml 21만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the miracle of Pitera

SK-II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피테라 에센스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자적인 성분과 검증된 제품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피부에 맑고 투명한 기적을 선사해왔다. 그 변함없는 신뢰를 입증하는 피테라 에센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SK-II 피테라 하우스에서 미라클 스토리가 펼쳐졌다.

SK-II의 상징이자 정수, 피테라 에센스

SK-II의 가치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제품이자,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준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피테라 에센스로 더 잘 알려진 이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30여 년 전 브랜드의 탄생과 함께 역사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브랜드의 변함없는 신뢰를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1980년 당시 피테라 에센스의 등장은 뷰티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획기적이었는데, 워터 타입 에센스 카테고리에서 새롭게 확장될 만큼 큰 이슈를 몰고 오기도 했다. 피테라 성분의 발견은 1970년 당시 SK-II의 과학자가 사계 양조장을 방문한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 당시 사계 양조장에서 일하는 나이 든 장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검고 쭈글쭈글했지만, 유독 손만듬은 아기처럼 부드럽고 곱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사계의 원료인 효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3백 50여 종의 효모를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피부에 가장 적합한 천연 효모 발효 대사액 '피테라™'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SK-II의 뿌리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성분이 되어주었다. 원형 그대로의 제품을 이어오고 있는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피부 세포와 가장 유사한 피테라 원액을 그대로 담아 최적의 피부 친화력을 자랑한다. 피붓결, 탄력, 표정 라인, 광채, 고른 피부 톤 등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다섯 가지 요소에 작용한다는 것을 토대로 한다. 게다가 흔히 발생하기 쉬운 건조함이나 각질을 잠재우고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바로잡아주어 피부 트러블을 잠재우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케이트 블란쳇을 비롯해 케이트 보스워스, 김희애, 임수정 등 SK-II를 대표하는 이들이 이 피테라 에센스를 오랜 시간 사용해온 로열 유저라는 사실만 보어도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SK-II 피테라 하우스 삼청점에서 만나는 미라클 스토리

SK-II는 피테라 에센스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피테라 하우스를 설립했다. 지난 6월 가로수길 피테라 하우스를 거쳐 7월 19일에 오픈한 피테라 하우스 삼청점에서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피테라™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색션이 마련되었다. 피테라 하우스 투어는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층별 안내가 이루어지는 지하 1층부터 시작된다. 피테라™를 처음 발견한 양조장을 재현한 지하 1층은 피테라™의 유산과 피테라 에센스 한 병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Discovery of Pitera'로 꾸며졌으며 1층에서는 SK-II 피테라 에센스를 경험한 1천 명의 체험단



1 피테라 하우스 삼청점의 외부. 2 2층에서는 피부 측정기 매진함을 토대로 전문적인 뷰티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3 피테라를 발견한 양조장을 그대로 재현한 지하 1층. 4 걸음을 앞둔 에비 신랑 신부라면 4층의 웨딩 프로모션 안내를 놓치지 마라.

이 전하는 후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브랜드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은 피부 측정기 '메지링' 진단을 바탕으로 한 뷰티 카운슬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샘플 키트를 증정하며 SK-II의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폴 바셋 카페테리아가 있는 3층을 지나면 4층에서는 웨딩 스페셜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해본 생생한 체험기를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1천 명의 피테라™, 미라클 프로젝트'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총 1천 명의 체험단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SK-II 홈페이지를 비롯해 피테라 하우스 홈페이지(www.piterahouse.c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피테라를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성분으로 발견하기까지의 미라클 스토리를 흥미롭게 구성한 피테라 하우스 삼청점은 9월 30일까지 열려 있다.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민

*피테라 하우스 삼청점 각 층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 많은 이미지는 (스타일 조선헤븐) 블로그(blog.naver.com/stylechosu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wer of value

브랜드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혹은 1백 년 이상 판매되어온 화장품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여전히 같은 원료와 형태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는 의미다. 브랜드의 흥망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브랜드의 명성을 지켜온 오리지널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60여 년간 이어져온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과학을 집결한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2003년 브랜드 론칭과 함께 선보였다. 가격대가 높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오래도록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너무나 잘 알려진 아모레퍼시픽의 독자 성분과 아시아에서만 구할 수 있는 60여 가지 성분을 담은 아시아 보태니컬 성분과 허브드레싱 물리학과 교수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술까지 더해 유효 성분 전달력이 뛰어나다. 처음부터 핵심 제품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기지를 리뉴얼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의 제품 완성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엘티미트

리프트 에이지 코렉팅 크림

에스티 로더의 제품들은 유독 이름이 길다. 그만큼 한 제품을 여러 번 리뉴얼하며 계속해서 발전시켜 기존의 이름에 새로운 기능이 덧붙기 때문이다. 리-뉴트리브 크림은 1956년 처음 세상에 선보였을 당시에도 놀랍도록 값비싼 크림이었다. 당시 평균 10달러에 불과한 크림을 1백15달러에 선보이며 “네, 비싸지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크림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베네피트 베네틱트

브랜드의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집약체인 베네피트의 대표 제품, 베네틱트. 처음 스트리퍼의 유두를 붉게 물들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품이 지금은 수많은 여성들의 양볼과 입술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선보이기 이전에 구매 대행을 통해 ‘천지현 틴트’로 인기몰이를 하다가 정식 수입된 이후에도 브랜드를 견인하는 스테디셀러로 여전히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후에는 핑크빛 포지티브, 피치 컬러 차차틴트가 뒤를 이어 출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미투(me too) 제품이 나왔음에도 뛰어난 발색력과 지속력으로 ‘틴트’의 원조라는 명성을 지키고 있다.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SK-II 모든 제품의 핵심 성분인 천연 효모 발효 대사액, 피테라. SK-II의 과학자가 1970년 당시 사계 주조장에서 일하는 늙은 장인의 사계를 직접 만지는 손이 유독 아기처럼 희고 부드러운 것을 우연히 발견한 데서 영감을 얻어 3백50여



종의 효모를 연구한 결과, 피부에 도움을 주는 천연 효모 발효 대사액 피테라를 담은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완성된 것. 한 병 가득 유패만 담은 이 제품은 1980년에 출시해 지금까지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젤랑 루즈 오프마띠외

이미 1930년에 한 손으로도 립스틱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립스틱을 최초로 선보인 것이 바로 젤랑이다. 물론 1871년에 현대 메이크업 역사상 최초의 립스틱이자 최초의 현대식 튜브 모델 립스틱을 선보인 것 역시 젤랑이다. 총알처럼 생긴 립스틱의 누름 장치를 밀어 올리면 핑크색 립스틱이 나오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립스틱의 원형이다. 이에 더해 보다 편리하게 립스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루즈 오프마띠외로 현재까지 젤랑의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1997년 설화수 브랜드의 탄생과 함께 선보인 이후 연 1백70만 개, 1분당 9개씩 판매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윤조에센스. 윤조에센스의 판매량은 다른 브랜드의 에센스 판매량과는 확연히 다른 엄청난 기록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 브랜드 파워가 모두 적절하게 어울리기 때문이다. 국민이 방문했을 때 선물하는 화장품으로도 유명한 설화수의 대표 제품인 만큼 제품력이 뛰어나다. 출시 당시 피부에 촉촉함과 윤기를 더한다는 콘셉트는 지금도 일맥상 통하지만, 2000년대에 부스팅 에센스 카테고리로 편입되며 피부를 깨운다는 콘셉트까지 더해 보다 모던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클라랑스 톤닉 바디 트리트먼트 오일

1954년 파리에서 뷰티 인스티튜트를 통해 최초의 100% 식물성 오일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를 선보인 클라랑스. 1960년에는 클라랑스 인스티튜트가 프랑스 전역에 1백여 개 이상 생겨났는데, 이러한 성공의 기반이 된 것이 바로 톤닉 바디 트리트먼트 오일이다. 이 제품은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나 임신부의 탄력성을 예방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로즈메리와 제라늄, 민트로 만든 에센셜 오일에 헤이즐넛 오일을 더한 제품으로 처음 선보인 그 모습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에디터 배미진



Super smart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딱 하나의 제품으로 안티에이징 케어를 끝낼 수 있다면 만족감 역시 대단할 것이다. 다섯 가지 노화를 한 번에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키엘의 슈퍼 스마트 크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키엘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 슈퍼 스마트 크림

한국 여성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키엘에서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을 선보였다. 이름하여 ‘슈퍼 스마트 크림’. 크림 하나로 주름, 탄력, 리프팅, 피뭉결, 보습이라는 핵심적인 다섯 가지 노화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것이 콘셉트이다. 사실 이런 크림이 있다면 여자들이 얼마나 편하겠을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집약해놓은 스마트폰처럼, 안티에이징에 대해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 없이 단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화장품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키엘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제품은 어떤 원리로 다섯 가지 노화를 케어한다는 것일까? 화장품의 원리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키엘이 1851년, 자그마치 1백60여 년 전에 뉴욕의 조제 약국에서 시작한 브랜드라는 사실이다. 피부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내추럴 성분을 선별하고, 손으로 직접 만든 크림을 선보였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키엘은 광고나 프로모션 대신 제품의 품질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어떤 지면이나 TV에서도 키엘의 광고 이미지와 키엘을 홍보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오로지 제품만으로 승부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스미스소니언 미국역사박물관은 키엘의 이러한 전통을 인정해 현재 1백여 종의 키엘 제품을 영구 전시할 정도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탄생했기에 이 새로운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모두 높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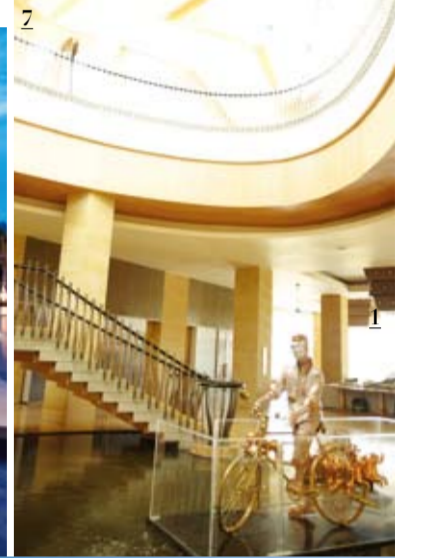
크림 하나로 다섯 가지 노화를 한 번에

강렬한 보라색 패키지에 담긴 슈퍼 스마트 크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텍스처다.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 다소 단단하고 쫄쫄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컬러의 크림이 담겨 있는데, 얼굴에 바르자마자 쭉쭉 스며들면서 얼굴 전체를 당기듯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했다. 크림을 바르다는 느낌보다는 쫄쫄한 팩을 하는 것에 가까운 정도로 얼굴에 즉각적으로 탄력을 주는 텍스처였던 것. 물론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크림 제형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키엘의 슈퍼 스마트 크림은 만져볼 때와 얼굴에 발랐을 때의 느낌이 동일하기에 만족도가 높았다. 손으로 만지고 손등에 발랐을 때 탄탄한 느낌을 주는 텍스처는 많지만,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 탄력이 사라지지 않고 흡수력까지 뛰어난 제품은 많지 않다. 수분감을 강조하다 보면 보습은 뛰어나지만 탄력이 부족하고, 탄력을 개선하기 위해 텍스처를 쫄쫄하게 만들다 보면 과도한 코팅력과 유분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기름이 도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크림에 담겨 있는 안티에이징 성분 역시 피부 자극이 없는 내추럴 성분이라 효과에 믿음이 간다. 피부를 조이고 당겨주어 주름과 탄력, 리프팅 효과를 주는 비치 트리 추출물과 피뭉결을 유연하게 하는 제스몬산, 피부 보습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히알루론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섯 가지 노화의 원인을 빠르고 확실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제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을 세워 꼼꼼히 적당량 바르는 것 역시 효과가 뛰어나겠지만, 매일 열 손가락에 꼽는 뷰티 루틴을 실천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수분과 탄력, 주름 개선 효과를 모두 담고 있는 키엘의 슈퍼 스마트 크림이 안티에이징에 딱딱한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50ml 7만9천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배미진



인도네시아 럭셔리 리조트, 물리아 발리

almost Paradise



물리아 발리(The Mulia, Mulia Resort & Villas-Nusa Dua, Bali)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계의 리딩 그룹인 '물리아 그룹'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수년간의 노고 끝에 탄생한 작품이다. 영국 콘테 나스트 사의 <트래블러>가 선정한 2013년 월드 베스트 뉴 호텔 부문 핫 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 누사두아 지역에 새롭게 선보인 물리아 발리는 6성급 리조트로 우선 웅장한 규모에 압도 당한다. 30헥타르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답게 입구부터 거대한 꽃 장식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과 15개의 독립적인 컨퍼런스 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공간을 제공하며, 생애 최고의 날을 선사할 3개의 감각적인 웨딩 채플은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다. 물리아 발리는 물리아 리조트(Mulia Resort), 럭셔리 부티크 호텔인 더 물리아(The Mulia), 물리아 빌라(Mulia Villas)로 구성, 세 군데 각기 다른 럭셔리 콘셉트를 자랑한다. 우선, 물리아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면 특이한 건물 구조가 시선을 끄는데, 크리스털 상들리에에는 용(dragon)이 역동적인 윙트립을 하는 듯한 형상이다. 입체적인 별(star) 모양으로 디자인한 천장은 아름다운 하늘과 더불어 상들리에와 함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전체적으로 컨템퍼러리 모던 스타일의 공간 구조가 아주 매력적이다.

로비 반대편으로 걸어가다 보면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의 라이브러리를 콘셉트로 한 '캐스케이드 라운지(Cascade Lounge)'가 자리 잡고 있다. 테라스로 나가면 시원하게 펼쳐진 수영장과 바다의 웅장한 뷰를 감상할 수 있는데, 연꽃 형태의 전등을 들고 서 있는 발리 여성 조각상들이 아름답다. 어느 리조트에서도 보기 힘든 물리아만의 시그니처 스타일, 발리 여성상이다. 해 질 무렵 연꽃 전등이 켜지면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오후에 양질의 도서와 향기로운 커피 또는 저녁 식사 전 카테일 한잔 가볍게 즐기 좋은 곳이다. 물리아 리조트의 메인 레스토랑 '더 카페(The Café)'에서는 조식, 중식, 석식 모두 뷔페로 즐길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주는 샐러드 바와 웨스턴 코너, 태국 본토의 맛 그대로를 자랑하는 태국 코너와 중식, 일식 코너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인터내셔널 뷔페 레스토랑이다. 특히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 음식 코너도 있어 세프가 직접 담근 김치와 갈비를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인상적인 더 카페는 물리아 투숙객뿐만 아니라 발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 외에 자중해식 레스토랑 '솔레이(Soleil)'은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 자연주의 요리를 선사한다는 콘셉트이다.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발리 여성상들이 서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디너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주말에는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브런치 뷔페가 준비되어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아이의 다이닝 바, '더 바(The Bar)'는 특별한 음료와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 오리엔탈 분위기의 전등과 곳곳에 놓인 유니크한 아트피스의 조화는 다소 앤트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을 풍긴다. 아름다운 웨딩 채플과 인공 호수의 뷰를 바라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기분이다.

발리의 클럽 문화를 리딩하는 누사두아 지역의 핫 스폿 'ZJ's 바(ZJ's Bar)'로 옮겨보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밴드가 열정적인 라이브 음악으로 관객과 혼연일체가 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물리아 발리 한국 사무소 노주원 이사는 'ZJ's 바에 들르면 초콜릿 마티니와 에플 마티니를 꼭

마셔보라고 강력 추천했다. 해변에 위치한 또 다른 바, '스카이 바(Sky Bar)'는 해 질 무렵 붉게 물드는 인도양의 석양을 바라보며 시원한 카테일과 간단한 타파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 유명 DJ가 선곡한 멋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로맨틱한 무드가 느껴진다. 물리아 리조트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스파. 한적한 곳에 위치한 스파는 발리의 전통 가옥 지붕이 연상되는 아담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발리 여인을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는데, 한적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세심하고 부드러운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를 제공해 일상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휴식처. 발리 지역 내에서 단연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에서는 야외 히드로 테라피, 아테 지역 최초의 아이스 룸과 웰니스 스파 등 발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한층 업그레이드된 최고급 럭셔리 스파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외에 고급스러운 초콜릿과 마카롱, 수제 젤라토 등을 맛볼 수 있는 '물리아 델리(Mulia Deli)', 다양한 종류의 풀장과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상주한 피트니스 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물리아 리조트와는 다른 콘셉트로 좀 더 폐미난한 분위기를 풍기는 '더 물리아'는 1백11개의 객실을 보유한 올 스위트 콘셉트의 부티크 호텔이다. 럭셔리 단지인 누사두아의 해안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는데, 스위트 바로 앞에서 전망이 환상적인 인도양과 아름다운 해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프라이빗한 풀이 연결된 라군 스위트룸과 개별적인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늑한 거실이 연상되는 '더 라운지(The Lounge)'는 최고급 다이닝 룸을 갖춘 라이프스타일 콘셉트의 공간이다. 특별한 아침 식사와 더불어 오후에 제공하는 하이 티 서비스는 늦깎이 오후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물리아만의 특징이다. 흔히 말하는 애프터는 티 세트와 비슷한 하이 티 서비스는 차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핑거 푸드를 3단 트레이에 담아 제공해 여성이라면 꼭 맛봐야 할 필수 코스. 더 라운지에서 나와 수영장을 지나면 바로 아름다운 해변이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화로운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사진 제공: 고은, 물리아 발리

마지막으로 1백8채의 단독 빌라를 갖춘 물리아 빌라는 누사두아 섬 최고의 규모로 원 베드룸, 투 베드룸부터 시스 베드룸의 물리아 맨션까지 다채로운 단독 빌라로 구성되어 있다. 좀 더 한적하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듯하다. 아늑한 침실은 전통 발리 가옥의 형태를 띠며 룸마다 그린, 옐로 등 색상에 따라 전체 무드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히드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개인 전용 풀과 백사장에서 한적한 정원으로 이어지는 전용 산책로가 울창한 자연과 어우러져 나만의 특별한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특별한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한 번쯤은 호사스러운 왕과 왕비가 되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리빙 룸(Living Room)은 서재, 레스토랑, 라운지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 공간이다. 곳곳에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이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발리의 전통 가옥이 연상되는 나무 소재의 천장이 세련된 인테리어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다. 토속적인 조각상과 장식품들이 패션과 예술 관련 서적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에스닉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이 느껴진다. 빌라 투숙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아침 식사와 오후 시간대의 하이 티 서비스도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중 하나다.

단순한 휴양지의 개념을 넘어 아트와 스페이스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새로운 럭셔리 리조트의 기준을 제시한 물리아 발리. 호텔 곳곳은 세계 각국에서 공수한 실내 장식품과 특색 있는 희귀한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외국의 어느 유명한 뮤지엄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출차를 받지 않는다는 점. 물리아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몇 번이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함 인도네시아 직원이 쉽게 눈에 들어와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국 직원은 물론 일본,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또 어느 곳을 가나 귀가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의 선정이 절묘하지만만큼 완벽하기 때문이다. 초호화 제품으로 치장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물리아 발리. 진정한 명품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전달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낯선 물리아가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어 한국 고객들을 사로잡을지 사뭇 기대가 된다. 문의 물리아 발리 한국 사무소 02-2010-8829

※ 글: 장은정(라이프스타일 저널리스트)



1 거대한 신전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사로잡는 물리아 리조트의 전경. 레스토랑에서 바라본 뷰이다. 2 클래식하고 중후한 가구들과 소품, 그리고 미술 작품들이 조화를 이룬 편안한 분위기의 객실. 3 레스토랑 '솔레이(Soleil)'의 간장시 메뉴. 4 전용 물장을 갖춘 물리아 풀 빌라. 전용 산책로의 이어져 총재인의 호젓한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5 물리아 빌라의 풀장. 모던함과 아늑한 매력의 잘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다. 6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의 물리아 리조트를 만난다. 조경과 석양 혹은 밤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7 리조트 내 곳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거대한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8 물리아 리조트의 인도네시아 규모가 물리아는 전용 해안, 수영장과 바로 연결되어 프라이빗한 비치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다. 9 레스토랑 '솔레이'의 내부. 10 석양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물리아 리조트.



Sold exclusively in Louis Vuitton stores. Tel. 02 3432 1854 www.louisvuitton.com

LOUIS VUITTON